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제201~300호)



1995. 4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1995. 4

인권정보자료실
R1.1.3

민권운동사랑방



중 수사가 끝난 것은 수백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앞으로 1만3천여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몸서리쳐지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국면 (종장)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으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8월 31일 장상환, 정진상 두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신공안정국’은 종장으로 향한다. 물론 사건은 계속된다. 사회민주주의청년동맹사건, 청소년잡지 『새날열기』사건, 성남지역 노동자회사건, 부천 한누리노동청년회사건... 그리고 10월 초의 성균관대학교 정현백교수 등 연행사건은 마지막 불꽃이었다. 정현백교수는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 큰 상처를 입으면서 “북한 장학금 교수”설을 잠재웠고 긴급구속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보수언론의 무책임함을 일정하게 제기했다.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의 납치 관행에 합법의 옷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이 긴급구속장 제도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발부할 수가 있으나 다만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조건에서 도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판사로부터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긴급구속장을 발부하고 체포만 해오면 48시간 후에 판사로부터 기각 당할 때까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초부터 8월 말까지 긴급구속건수가 4만2천건을 넘었으나 이 중 판사가 사후 영장을 발급한 건수는 1만3천7백50건(32.5%)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3만건 가까운 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하게 구속 당했다가 풀려났다는 결론이다. 이 못된 나라의 못된 관행에 국민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공안당국을 끌고 다니면서 ‘신공안정국’을 주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언론이었다. 증거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다. 윤리를 지키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선정과 보수만 있으면 ‘장맹’이었다. 타사와의 판매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1면 톱기사에 군에 입대한 주사파 학생들이 국군의 지휘계통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60만 대군을 1천5백명 사병이 와해시킨다” 따위 제목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달곤 했다. ‘신공안정국’ 과정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사실, 그것은 언론이 이제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확고한 권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뒤이어 마구잡이로 터지기 시작하는 공직사회의 대형 부정사건, ‘지존파’ 등 초강력범죄, 성수대교 붕괴 등등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묻혀가면서 사실상 완전히 복권된 공안세력에 의해 여유있게 유지되는 완만한 공안국면을 뒤에 남긴 채 종식된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

차 례

차례

격려글 전자통신 시대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3
머리글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정인섭(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부교수)	/ 5
머리글 2 한국의 인권, 1994년 · 인권운동사랑방	/ 12
색인 <인권하루소식> 합본3호 색인	/ 273
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합본3호 색인	/ 297

제201호(94.7.8, 금)	/ 39
1면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서울고법, 김삼석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관례 따라 한계 ·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2면 · 93년 한해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제202호(94.7.9, 토)	/ 41
1면 ·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 ·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 진해여상 9명 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 구속 철도노동자 석방요구, 8일째 금식기도회	
2면 · 93년에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 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제203호(94.7.12, 화)	/ 43
1면 · 경실련 「검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말이나 폭행 경험 67%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9일 원진대책위 집회	
2,3면 · 93년에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3)	

제204호(94.7.13, 수)	/ 46
1면 ·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씨등 국가상대 손해소송 ·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인권간행물	
2면 · 아시아지역 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등 논의, 제3차 아태지역인권워크샵 · “노조원 대량징계 철회하라”, 12일 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일정	

제205호(94.7.14, 목)	/ 48
1면 ·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 두밀분교후원회 재판방청, 토론모임등 추진
·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
2~3면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1-지역인권기구란?

제206호(94.7.15, 금)	/ 51
1면 · 7천여 국민학교중 3천8백여학교 통폐합 대상, 전국교대생 온나라 결기대회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3차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켈거리 여성단체 방문, 여성의 전화 · ‘수배해제등 강업조치 철회’,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2~3면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국민인권기구란?	

제207호(94.7.16, 토)	/ 54
1면 ·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등 적용 · 92년 전대협 조총위장에 징역 2년 선고 · 27일부터 어린이 여름학교, 전교조 초등지부	
2면 · 단체탐방 25-한국사회정책학회	

제208호(94.7.19, 화)	/ 56
1면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18일 개막 · 5월광장 어머니회, 김선명씨 석방추진운동 벌여 · 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21일 시민·여성단체 토론회 · 미군범죄근절본부, 김분임씨 살해범 검거촉구	
2면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3면 ·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제209호(94.7.20, 수)	/ 59
1면 ·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우려”, 한총련, 박홍총장 며에훼손혐의 고소 방침 · 노조원 대량구속·징계철회 안 할 경우 재파업, 서울지하철노조 19일 대의원대회	
2면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제210호(94.7.21, 목)	/ 61
1면 ·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위한 ‘민중재판’ 추진 · 아태지역 인권포럼 정례화 합의, 20일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폐막	
2면 · 국제중재재판소란?	

제211호(94.7.22, 금)	/ 63
1면 ·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 · 평불협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 ·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2~3면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마지막 회)-평가와 반성,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 현대중공업 긴급조정권 발동움직임 철회촉구, 전노대 규탄집회등 연대활동 벌일 것 · 정대협 청와대 면담요구 강제해산 항의서한	

'94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위원회 결성

제212호(94.7.23, 토) / 66

- 1면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등 필요
 - 지타연, 일본 탁아시설 방문
 - 두밀분교 폐교철회 지지방문-7월 23~24일
- 2면 ·단체탐방 26,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제213호(94.7.26, 화) / 68

- 1면 ·사회발전 세계정상회담 대비,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
 - 7.28-8.1 YMCA, AI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열려, '양심수의 밤'등 특별행사도
- 2면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
 - 전혜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
 - 인권간행물

제214호(94.7.27, 수) / 70

- 1면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 전기협 비대위, 철도청장 폭력교사혐의로 고발키로
 - 부산·경남지역 산재노동자 급증, "올 9천여명"
- 2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영화 제작,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결정
 - '분향소' 합수부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
 - '사진촬영 안했다' 증언경관 진술변복, '전남대 분향소' 수사관
 - "협상 불응할 경우 15일 이전 재파업", 서울지하철 노조
 -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주민편견 극복되어야

제215호(94.7.28, 목) / 72

- 1면 ·문국진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위한 재정지원 결정
 -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 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증세등 포함
 -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 2면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UR 비준강행 철회, 재협상 촉구
 - 불벌터위에도 계속되는 전혜투 텐트농성, 8.18-20 전혜투 평가회
 -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128차 정대협 수요시위 주관
 -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의 대체요구
 - 「고난」 8월 3주간 통일학교 개최
 - 부경총련 조통위원장 국보법위반혐의 조사

제216호(94.7.29, 금) / 74

- 1면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등 요구
 - "UR비준보다 가뭄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철도청장 철도공안권 폭력 책임지고 사퇴촉구, 철도·지하철 3종단 대책회의
 - 서울대병원 노조원복직등 잠정합의
- 2면 ·"학생들은 신공안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
 - UR비준 계획 철회 촉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전문상담교육실시, 여민회, 8.23-10.18

- 중노위, 자보간부 29명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 '94년 엠네스티 아태지역대회 병행행사 일정

제217호(94.7.30, 토) / 76

- 1면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대표, 엠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 2면 ·단체탐방 27,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 공안문제연구소, 4년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제218호(94.8.2, 화) / 81

- 1면 ·엠네스티,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표명, "특정부분만 언급, 엠네스티의 인권보편성 왜곡"
 - 여대협, 재일동포 폭행사건 대책수립 촉구
 - 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혐의 구속, 경찰 피의사실공포 자의적
- 2~3면 ·「인권하루소식」 7월분 총목차(196호-217호)

제219호(94.8.3, 수) / 84

- 1면 ·영등포교도소 폭염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 교수까지 다다른 방향없는 신공안 바람,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
 - AI 국제사무국, "언론, 남한 인권무시" 유감표명
 - 인권위 집행위 열려
- 2면 ·엠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

제220호(94.8.4, 목) / 86

- 1면 ·경상대교수에 소환장 발급, 관련교수들 4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힐 예정
 -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 2면 ·동티모르에서 여전히 '실종' 및 살해가 계속돼, 호주 「티모르의 벗」 긴급호소문 보내와
 - 정부, A규약 보고서 검토회 연기 요청, 내년 5월 열릴 예정
 - 참고자료 : 『한국사회의 이해』 차례

제221호(94.8.5, 금) / 88

- 1면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등 학계 공동대응키로
 -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등 재정신청 및 항고
- 2면 ·작은 학교의 생명력을 살려 교육의 틀을 마련할 터,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기자회견
 - 서울시경,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맞추기식 조작수사"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요약)-『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일동

제222호(94.8.6, 토) / 90

- 1면 ·민교협·학단협·민에총등 7개단체 「공동대책준비위」 결성, 집필교수들 정정보도 요청서 제출
 - 인터뷰 : 김의동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장중 1인)
 - 서부경남지역 21개 단체, 학문의 자유 보장 촉구
- 2면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
 -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 "전두환정권 때도 없었던 일"

- “김청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복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
-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씨 가족
- 영등포교도소. 안재구씨 면회제한
-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 중앙일보 8월 3일자 사설, ‘붉은 교수 사실인가’(부분발췌)

제223호(94.8.9, 화) / 92

- 1면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 불투명한 사인으로 고대생 폭행치사혐의 구속
·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2면 사회경제학회·대학강사노조·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제224호(94.8.10, 수) / 94

- 1면 ·학문·사상·표현 자유 보장항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시대 경영대 교수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병원도착전 대취, 학생조사결과
- 2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등건해(전제)

제225호(94.8.11, 목) / 96

- 1면 ·신공안정국-시련받는 인권 기획(1)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자료제공-민가협)
- 2면 ·이창복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본격화, 11일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긴급구속장 남발, 족속수사 비난, 영장기각 3명, 불구속 입건 2명
·영·호남 지역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즉각 중지 요구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등 B규약 위해

제226호(94.8.12, 금) / 98

- 1면 ·신공안정국-시련받는 인권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여관등에서 고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국제사면위
- 2면
·신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제227호(94.8.13, 토) / 100

- 1면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서울시 교육청, 이수호씨등 8명 임용대상 제외, 면담기회도 안 줘, 전교조 ‘관료행정의 표본’ 비난
·사망 6명 중경상 52명,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
- 2면 ·단체탐방 28 /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제228호(94.8.17, 수) / 102

- 1면 ·강기훈, 이재야 나왔다, 17일 새벽 만기출소, 강씨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2면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서명운동 본격화, 13일 학문·사상·표현공대위

- 전해투 하계수련회, 8월 18-20일
- 경시대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
- 인터뷰 :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출소한 강기훈씨

제229호(94.8.18, 목) / 104

- 1면 ·경시대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 2면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변협,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임중처벌 요구
·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제230호(94.8.19, 금) / 106

- 1면 ·이창복·황인성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 발표
- 2면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시대 총장에 항의서한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체 예비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황석영씨 환송심 첫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

제231호(94.8.20, 토) / 108

- 1면 ·민교협, “반지성적, 반양심적 박흥총장 사퇴”, “경시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도
·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
·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 “불교계의 사회적 약자 등한시 반성”
·노동법 교실 개척
- 2면 ·단체탐방 29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제232호(94.8.23, 화) / 110

- 1면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감절, 22일 민주당 집계통계
·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
·폐강항의 경시대 방문/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
- 2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제233호(94.8.24, 수) / 112

- 1면 ·민간위로금 철회·전쟁범죄 인정·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
- 2~3면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최대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계회
·성희롱 사건 항소심 공판

제234호(94.8.25, 목) / 114

- 1면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신공안정국 돌파논의, 민가협 수련회
- 2면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 김청동 기소, 1명 석방
- 경상대학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교수 90인 성명(전문)

제235호(94.8.26, 금) / 116

- 1면 ·“문국진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배소송
 -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 8월 29일, YMCA
 -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
 - 강좌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재우고 수사
- 2면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등 다뤄

제236호(94.8.27, 토) / 118

- 1면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25일 새벽1시경 압수수색, 유초하교수3등 수배
 - 경상대학교수 “구인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 공무원 임용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
- 2면 ·단체탐방 30 /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제237호(94.8.30, 화) / 120

- 1면 ·경상대학교수 수사, 김영삼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YMCA,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열어, ‘법률구조, 상담, 의료활동등 사업계획’
- 2면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민정권간부 긴급구속
 - 경상대학교수 구인 용할 것
 -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

제238호(94.8.31, 수) / 122

- 1면 ·대한변협·민변, ‘정치관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 2~3면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제239호(94.9.1, 목) / 127

- 1면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 시작,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고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 검찰 경상대학교수 영장재청구 방침 비난 빚발, 장상환교수등 밤샘농성 계속
- 2면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침 지금도 유효한가, 포함제철회 노조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
 - 자료-최인석 판사 『한국사회의 인식』 교수 영장 기각 사유전문, 민교협 성명서

제240호(94.9.2, 금) / 129

- 1면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평화우호교류계획,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 2면 ‘헌법재판관 인증청문회 반드시 필요’, 설문결과
 - 고 김남주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 대회

제241호(94.9.3, 토) / 131

- 1면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등 강력 항의
- 2면 ·단체탐방 30 -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제242호(94.9.6, 화) / 133

- 1면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등 권고
 - 합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
 -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중
- 2면 ·전국연합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
 - 백골관 집단구타 철거민연합 평화집회 이수라장
 -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재차 항의
 - 자료 -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문

제243호(94.9.7, 수) / 135

- 1면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문민적 정부 ‘인권과수꾼’ 역할
 -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긴급구속
 -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 국제사면위 한국·일본지부 인권교육 마련
- 2~3면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1 -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이덕우 변호사)
- 3면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 프락치혐의자 사망 관련 4명 기소
 - 이창복·황인성 6일 기소

제244호(94.9.8, 목) / 138

- 1면 ·국보법 고등학생까지, 경찰 밀실수사 진술내용 지도, 청소년단체 3명 구속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2면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 법대협 창립
 - 현중 고소·고발 취하 약속 안 지켜, 전노대 ‘노조집행부 와해 음모’
 -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
 - 이순심씨 항소심
 -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문
- 3면 ·창간 1주년 특집 2 - 장애인 / 인터뷰-김성재 함께걸음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제245호(94.9.9, 금) / 141

- 1면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경찰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지하철 13일부터 시한부 파업 밝혀
- 2면 ·창간 1주년 특집 3 -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 인터뷰 - 채은아(민가협 간사)
 - 김영삼 정권이후 양심수 현황통계-민가협 제공
 - 6-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645명 민가협 발표

제246호(94.9.10, 토) / 143

- 1면 ·「샘」 활동 참가 고등학생 중징계, 영등포여상 지도교사에게 사표 증용
 - 검찰 경상대교수 소환수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간활동 연수
- 2면 ·창간 1주년 특집 4 - 국제인권, 자결권 / 프랑스, 카나키의 자결권 침해
 - 김주석 예도 표명 대학생 구속

제247호(94.9.13, 화) / 145

- 1면 ·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일본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
 - 전국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외 금지
 -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림터」 문열어
- 2면 ·창간 1주년 특집 5 - 외국인노동자 / 인터뷰-김재오(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찾아주기 사무국장)
 -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정경식 헌재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 범민족대회 관련 전국연합 최규엽씨 조사받고 풀려나

제248호(94.9.14, 수) / 147

- 1면 ·강기훈씨 어머니 수기집 출간, 한겨레신문사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 경상대 교수 3백11명 사법처리 반대
 -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개최
- 2면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자료 - 민변,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논평

제249호(94.9.15, 목) / 149

- 1면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편견 사로잡힌 듯, 「구국전위」 재판 공정성 우려
- 2면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성폭력상담소 의료·심리치료등 제공
 - 원진비대위 대통령에 원진문제 해결 촉구 서한
 - 남재희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
 - 광고시간확대 여성상품화 가속, 여성민우회 성명
 - 충북대교수협 유초하교수 수배해제 촉구

제250호(94.9.16, 금) / 151

- 1면 ·사회개발정상회의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2면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정부 개혁의지 의심
 - '진보운동탄압반대 교수모임' 유초하교수 수배해제 촉구
 -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위해 일본 방문

제251호(94.9.17, 토) / 153

- 1면 ·재일정치범 류정석씨 면회 외국인 이유로 거부, 일본 「류정석씨 지원회」
 - 상납비리 고발 전 경자 파면처분취소 소청, 참여연대 동참
 - 원진문제 노동부 왜곡
 - 서울변회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

- 한가위맞아 찾아간 전해투 농성장-「가을투쟁」 재정 마련 한창
- 2면 ·단체탐방 31 -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제252호(94.9.27, 화) / 155

- 1면 ·유가협총회 신임회장 선출
 - 시민인권상 수상식
 -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 7기 장애우대학 개설
 - 여성의 전화 강서지부 개소
- 2면 ·가난 고용 실업등 주제 검토,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운영위

제253호(94.9.28, 수) / 157

- 1면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
 - 민변 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 철폐
 - 재판부 두밀리분교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2면 ·노민문연 회원등 8명 연행, 이적단체 규정
 -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참여연대 토론회
 -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황석영씨 7년 선고

제254호(94.9.29, 목) / 159

- 1면 ·'구국전위사건' 안재구씨 첫 공판 열려, 안씨 "복과 관계 없다"
 -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월 1회 실시
 -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방문 및 세미나 참석
- 2면 ·고등학생 100여명 징계 및 조사, 경찰 왜곡수사, 청소년단체 「샘」 기자회견
 -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씨 자녀 증인신문
 - 자료-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국보법 위반 성명서

제255호(94.9.30, 금) / 161

- 1면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활발,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 엠네스티 10/9-25일 한국방문
 - 엠네스티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
- 2~3면 ·자료-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요약)
- 3면 ·방글라데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 정대협,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회견 일본언론 관심 많아

제256호(94.10.1, 토) / 167

- 1면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 빈민장애인 삶 사진전,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 2~3면 ·인권하루소식 9월분 총목차(239호-255호)

제257호(94.10.5, 수) / 170

- 1면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문전박대 당하는 원진노동자, 재취업알선장도 소용없어

- 원진폐업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관에 취업알선 노력"
- 2면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에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
 -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 천주교인권위 '연례모임'

제258호(94.10.6, 목) / 172

- 1면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 규정을"
 -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 2면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인시설등 방문, 한국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기 되기를
 - 9월22일-10월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

제259호(94.10.7, 금) / 174

- 1면 ·가난한 아이들의 꿈, 희망, '민들레의 합창', 서울공부방연합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해 긴급구속, 북한장학금 받은 혐의만 간접적으로 밝혀
- 2면 ·강기훈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다음주중 김형영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 사형폐지협, "흉악범죄 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 민가협 55차 목요집회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
- 3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허위공문서 작성부분)

제260호(94.10.8, 토) / 177

- 1면 ·NGO한국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 발전전략세미나,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2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위증부분)
- 3면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행

제261호(94.10.11, 화) / 180

- 1면 ·'민들레의 합창' 어린이·교사·지역주민등 225명 출연,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어린이의 꿈과 희망 담
 - 민교협, 안기부장에 공개사과 요구
- 2면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련 10주년 기념식
 - 앰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민교협 성명 전문)

제262호(94.10.12, 수) / 182

- 1면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 우조교 항소심 3차공판, 조교임면권 싸고 공방
- 2면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 공개모집
 - 인터뷰 :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미경씨

제263호(94.10.13, 목) / 184

- 1면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히
 -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 2면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제264호(94.10.14, 금) / 186

- 1면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
 -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원폭피해자와 일본 진후청산등
 -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토론회

제265호(94.10.15, 토) / 187

- 1면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 철도노동자를 위한 하루찾집, 불교인권위
 - 외대생 배병성씨 1심대로 무죄선고
- 2면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 사형폐지, 생명존중 운동 시작
 - 14일 고난 운영위,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
 - 조정식열사 12일 추모비 개막
 - 여성문제 요약한 여성수첩 95년판 발행
 - 전국여성대회 열려

제266호(94.10.18, 화) / 189

- 1면 ·긴급구속, 경찰·검찰·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 2면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제267호(94.10.19, 수) / 191

- 1면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공포분위기에 경찰조사 받았다"
 -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 2면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글, 두말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 유초하 교수, 안기부에 자진출두

제268호(94.10.20, 목) / 193

- 1면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 민정련 회원, 기무부대에 연행
- 2면 ·'구국전위' 안재구씨 반국가단체구성등 공소사실 부인
 -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 조선일보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인권침해 우려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성명

제269호(94.10.21, 금) / 195

- 1면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채 식사
 -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 2면 ·인터뷰 : 박세경 변호사-긴급구속을 해부한다

제270호(94.10.22, 토) / 197

- 1면 ·유가협 국회의사당 앞 시위,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 앰네스티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등 방문실태 조사
- 2~3면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서준식, 서울평화교육센터 평화교육강좌 중 발췌)

제271호(94.10.25, 화) / 200

- 1면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 2면 ·에이즈감염자단체 「스톱에이즈운동본부」 발족
 -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연노련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제272호(94.10.26, 수) / 202

- 1면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중식, 구속자석방등 촉구
 - '현대판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 일본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운동 시작
- 2면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
- 2~3면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제273호(94.10.27, 목) / 205

- 1면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황석영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 부친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심한 부친 실랑이중 사망사건 양에리씨
- 2면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제274호(94.10.28, 금) / 207

- 1면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 살인혐의 김기웅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 린법정
- 2면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제275호(94.10.29, 토) / 209

- 1면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등 핵심조항유보
- 2면 ·함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보장에 한 발 진전
 - 외무부,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해' 기존입장 재확인

제276호(94.11.1, 화) / 213

- 1면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 '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

2~3면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256호-275호)

제277호(94.11.2, 수) / 216

- 1면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
 -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 이창복씨 첫공판, 판사가 일방적 연기
- 2면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 자료요약-김삼석남매 간첩조작의 진상

제278호(94.11.3, 목) / 218

- 1면 ·한미행정협정개정 투쟁 적극적 전개,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 민정련회원 7명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2면 ·국제인권소식-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중
 - 앰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표명
 -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추모집회

제279호(94.11.4, 금) / 220

- 1면 ·병무청의 약속파기-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위기
 - 민가협 57차 목요집회
 - 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 2면 ·안동교도소 최태호이경 사망사건-유족들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갱이에 구타흔적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제280호(94.11.5, 토) / 222

- 1면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
 -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출범
- 2면 ·단체탐방 33 /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곳

제281호(94.11.8, 화) / 224

- 1면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
- 2면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썩, 한총련 조통위원장 연행
 - 기소권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경실련 토론회
 - 전국연합등, 부패무능정권 규탄집회
 - 홍사단, 학생의 날 기념식
 - 동두천시민회, 미군상대 단식농성, 거리서명

제282호(94.11.9, 수) / 226

- 1면 ·세모녀 폭행사건,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2면 ·12·12 기소유예는 검찰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제 확대촉구, 대한변협 12·12 사건토론회
 - 민우회,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발간

·동일여고 졸업생 피켓시위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국민적 요구 담아낼 수 있어야

제283호(94.11.10, 목) / 228

1면 ·배인오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양심선언 현지조사 결과발표
2면 ·국제인권소식-엠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아시아여성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
·인도어민 무기한 파업돌입, 외국어선 조업금지 요구
·성희롱, 권력에 의한 것,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일수록 성희롱 심해,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제284호(94.11.11, 금) / 230

1면 ·백홍용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
2면 ·동두천시, 미군지프피해자 배상금 지급위해 노력하기로
·민가협·전국연합등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3면 ·백홍용씨가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에게 쓴 자술서

제285호(94.11.12, 토) / 233

1면 ·“고교에 주사파침투” 경찰발표 배긴 동아일보, 「샘」회원 강천규, 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공판
·민주노총건설 위지를 결집할 전국노동자대회
2면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
·손봉헌 현대정공위원장, 제3차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
·12월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등 12·12 기소조치 촉구
3면 ·단체탐방 3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제286호(94.11.15, 화) / 236

1면 ·한국민간단체, 동티모르 인권문제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표명
·파출소 비리폭로경관 파면처분 지나치다, 총무처 소청심사위
·민주노총준비위 발족, 13일 노동자대회에서
2면 ·자료-백홍용씨 양심선언 베를린 현지조사보고서(요약)와 독일 현지신문 보도

제287호(94.11.16, 수) / 238

1면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인권위원회’ 설립·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참여연대등 APEC에 요구
·「샘」사건 김용우씨 2차공판
2면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김동한)
·국제인권소식-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성명서(요약)

제288호(94.11.17, 목) / 240

1면 ·김청동사건, 신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성 짙다, 피의자들 김청동결성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12.12 기소위해 시민행동 조직결의, 12.12까지 매일 대검앞 항의집회
2면 ·최태호이교 의문사 의혹 증폭, 대책위결성, 항의집회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KNCC인권위

제289호(94.11.18, 금) / 242

1면 ·구국전위 안재구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최태호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요구 관철
2면 ·부산신씨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국제엠네스티-전 남한 안기부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석방 재요청

제290호(94.11.19, 토) / 244

1면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말라, 함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주민참여가 지자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회
·윤석양 출소환영회 열려
2면 ·단체탐방 35 / 참사랑 쉼터

제291호(94.11.22, 화) / 246

1면 ·최태호이교 재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예정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4년구형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문제 해결약속
2면 ·집중심리 오용, 지존파·사법정의토론회
·사건으로 되집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제292호(94.11.23, 수) / 248

1면 ·국제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등 촉구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2면 ·국제인권소식-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11월28-30일, 타이 방산
·95년 ‘민중의교훈런프로그램’ 1월9일-2월3일, 타이 방콕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요약)

제293호(94.11.24, 목) / 250

1면 ·최태호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전모공개·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2면 ·양심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전교조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30개 환경·사회단체 반핵운동본부 결성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

제294호(94.11.25, 금) / 252

1면 ·김삼석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홍용씨, 김씨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자 가족, 연행돼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
2면 ·백홍용씨가 ‘김삼석, 은주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94년 11월 18일자

제295호(94.11.26, 토) / 254

- 1면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대학원학력자, 89년 3월이전 토목자도 징집면제
- 2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원진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 원진직업병 판정 3백62명
- 3면 ·감옥에 양심수가 묶여 있습니다-민가협, 11.25.-12.9.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
·독자투고-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강영화)

제296호(94.11.29, 화) / 257

- 1면 ·일본군 위안부문제,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
- 2면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계는 89년에 인수"
·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

제297호(94.11.30, 수) / 259

- 1면 '세계화'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 2면 ·AI보고서 허가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났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발간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
·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제298호(94.12.1, 목) / 263

- 1면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의결 회기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재소권등 유보
·안재구씨 무기징역
·안재구씨 가족, 24시간 수감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 2면 ·11월분 총독차

제299호(94,12,2, 금) / 266

- 1면 ·동티모르 독립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게 인권단체 압력필요
·일본의 이씨 구원회, 이화춘씨 사건 조작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최태교이교 구타자 처벌
·AI즉각 석방 요구, 안재구씨 사건 조작의혹
- 2면 ·교도소 담을 넘나드는 편지
·이제는 중단되어야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제300호(94,12,3, 토) / 268

- 1면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 보장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아동학대예방세미나,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2면 ·동티모르 독립지원하는 민간단체 연대와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운동 호소
·2일 민교협 성명, 경상대 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 3면 ·단체담방37-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인권하루소식

94년 7월

(제201호 - 제217호)

단체탐방 37 /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언제나 병원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진찰을 받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적어도 어려서부터 몇 번쯤은 들러봤으면만 매번 낯설고 병원 현관문을 밀기가 쉽지 않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옳까.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처럼 의사나 병원에 대한 불신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불만들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의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 문제점은 당사자인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공감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의료개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 농약과 농기계로 인한 중독사고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농촌, 수시로 일어나는 질병과 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작업장의 노동자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숭고한 정신을 한 평생 삶의 뜻대로 삼고 살아가려는 의사들이 모임을 시작했다. 이런 소박한 실천은 87년 '호헌철폐' 서명에 1백37명이 서명하는 계기를 맞아 "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서명자들을 중심으로 인의협 준비위원회가 생겼고 그해 11월 21일 인의협이 간판을 내걸게 된다.

인의협과 같은 모임을 손꼽아 왔다는 것은 창립전에도 쏟아져 오는 상담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담전화는 한달에 무려 3백통을 넘어가까지 했다. 때를 기다려 왔다는 뜻이 마구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은중독으로 숨진 문송면군의 죽음을 비롯해 88년에는 유별나게 중금속노출로 숨져간 이들이 많았던 때였다. 같은 해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 주민에게 처음 발견된 진폐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진폐증이 직업병만이 아닌 환경병으로 새롭게 인식된 데에는 인의협의 발로 뛰는 수고가 있었다. 89년 4월 인근 미공군 사격장의 폭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느낀다는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주민들의 집단 호소가 들어왔다. 89년 5월 고 이철규의문사 사건은 정국에 파문을 던졌고 인의협은 '이철규의 의문사 사건에 관한

인의협의 견해'를 발표한다. 90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근로원들에게 발생한 납중독 사건에 대한 학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적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고 91년에는 원진레이온 고 김봉환씨의 직업병 인정과 산재추방을 위한 노력을 연대사업으로

국민건강권 획득을 위한 현장의 몸부림

적극 펼쳤다. 이처럼 전문성을 통한 인의협 회원들의 광범위한 사회 참여는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졌다.

독립문의 기상을 담고 있듯 독립공원 맞은 편 시장골목에 자리한 인의협은 공동대표로 조한의(교직의 대표)·홍영진(봉직의 대표)·배기영(개업의 대표)·원제환(전공의 대표)씨가 맡고 있다. 조직체계로는 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국장단회의, 각도지회 및 지회건설준비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실무부서로 기획국, 조직국, 사무국, 대외사업국, 출판국, 학술국이 있다. 조직국 산하 정책실에서는 3대 연구주제로 지방자치제와 보건의료, 우루과이라운드와 보건의료, 통일과 보건疫를 설정, 연구작업, 공개토론회등 개최했다. 대외사업으로 진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출판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의 하나로 『잘못된 건강상식 100』(한울출판사 펴냄, 94) 『장애인의 권리』(인의협출판사 펴냄)을 펴냈고 끈이어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 100』을 펴낼 계획이다. 그리고 월간신문 <인의협 소식>을 펴내고 있다. 이밖에도 인권협 비정규직파로 '전공의 직업병 발표', '한국 근대의학의 역사'등을 진행하였다.

의료운동에 있어 최종 지향점은 어디일까. 김종구 조직국장(사당의원원장)은 "건강문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권 쟁취가 중요하다.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소외층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보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부분의 의료사업이 민간에 치중되어 있는데 보건소 같은 공

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환경문제의 심각성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없애는 사업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권 확보 속에서 인의협은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내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법'쟁취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햇수로 8년째 1백30여명의 회원이 9백50명으로 늘어난 의형적 변화외에도 '인의협'이 국민들에게서 알려지면서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너머 산이라고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다. 초창기 멤버인 김종구씨는 인의협 사업중 겪는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조직화 사업이라고 우선 순위를 꼽았다. 의사라는 직업이 시간을 내기가 딱딱한 직업이라는 것과 다른 직업과는 달리 개인적 성향이 강한 것이 어려움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창기 고민했던 의사대중운동이 과연 가능한가는 것은 아직도 첫번째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아쉬움도 많았다. 91년 5월 박창수열사조사단 활동을 벌였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한다.

인의협의 어깨에 드리운 과제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건강권 획득이다. 의사라는 직업때문만은 아닌데 아직도 보건의료정책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들 역시 교육·교통·주택문제를 시급하다고 보았지만 국민건강권문제의 절박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김종구씨의 부탁은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과 지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의협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길을 오늘도 꾸준히 가고 있다.

주소 : 서대문구 영천동 69-4 2층
전화 : 362-0377,8/팩스 : 362-0378

<인권하루소식 김수경 기자>

인권하루소식

합본 III 색인

(제201호 - 제300호)

부록 :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호』 색인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합본3호(201-300호)를 펴내면서 게재되었던 기사를 주제별로 색인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색인작업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나다순).

<색인순서>

- 274 / 경찰폭력, 안기부 - <김기웅 순경사건> <김춘도순경 사망-배병성씨 사건> <기타>
- 274 / 고문, 가혹수사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의문사>
- 275 / 교육 - <두밀리분교> <전교조>
- 275 / 국가보안법 -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구국전위사건> <신공안정국사건> <김삼석남매사건> <김일성주의청년동맹사건> <민정련사건> <사노맹사건> <샘사건> <황석영씨방북사건>
- 279 / 국제 - <국제엠네스티> <사회개발정상회의> <동티모르> <북경여성대회---->여성 <아태지역인권위크삼> <오월광장어머니회---->불처벌 <여성일반> <유엔관련기구> <유엔인권위원회> <인권고등판무관> <해외단체활동>
- 282 / 노동 - <산업재해> <외국인노동자> <원진레이온> <전해투> <지하철, 철도파업> <한국자보>
- 283 / 노인, 아동
- 284 / 농민
- 284 / 단체탐방
- 284 / 도시빈민
- 284 / 미군범죄 - <윤금이사건>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 285 / 법제 - <법제일반> <긴급구속> <사형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헌법재판소>
- 286 / 북한인권
- 287 / 불처벌 - <12·12> <오월광장어머니회> <정신대> <정대협--->여성 <조작간첩사건>
- 287 / 사회보장권
- 287 / 양심선언, 군 - <양군모>
- 288 / 양심수, 장기수 -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조작간첩사건--->불처벌
- 288 / 여성 - <가정폭력> <북경여성대회> <이순심씨사건> <성폭력, 성희롱 일반> <서울대 우조교사건>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정대협> <지탁연> <여성의 전화>
- 289 / 인권교육
- 290 / 인권단체 - <고난모임> <교회협인권위> <대한변협>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고2문 <민가협> <민교협> <민변> <불교인권위> <서울지방변호사회>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협> <천주교인권위>
- 292 / 인권일반 - <언론의 인권침해> <인권하루소식> <전국연합> <환경>
- 293 / 장애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일반> <장애인취업>
- 294 / 행형실태

경찰폭력, 안기부

-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94.7.14 205 / 48
- 백골단 집단구타 철거민연합 평화집회 이수라장/94.9.6 242 / 134
-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썩, 한총련 조통위원장 연행/94.11.8 281 / 225
-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김동한)/94.11.16 287 / 239

<김기웅순경 사건>

- 살인혐의 김기웅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94.10.28 274 / 207

<김춘도순경 사망- 배병성씨 사건>

- 외대생 배병성씨 1심대로 무죄선고/94.10.15 265 / 187

<기타>

-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94.8.9 223 / 92
- 프락치혐의자 사망 관련 4명 기소/94.9.7 243 / 137
-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학생조사결과/94.8.10 224 / 94

고문, 가혹수사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94.7.8. 201 / 39
- 고문피해자, 국가상대 손해소송/94.7.13 204 / 46
-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등 재정신청 및 항고/94.8.5 221 / 88
-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해소송제기/94.8.6 222 / 91
- 신공안정국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여관등에서 고문/94.8.12 226 / 98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손해청구도 계획중/94.8.24 233 / 113
-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제우고 수사/94.8.26 235 / 116
- 함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94.9.6 242 / 133
-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핵심조항유보/94.10.29 275 / 209
- 함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94.11.19 290 / 244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3차공판/94.7.15 206 / 51
- 문국진씨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94.7.28 215 / 72
-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해소송/94.8.26 235 / 116
- 창립 1주년 /94.10.13 263 / 184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손해소송 5차 재판 /94.11.4 279 / 221

<의문사>

- 유가협 국회의사당 앞 시위,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94.10.22 270 / 197
- 유가협, 의문사 청원 앞서 민자, 민주당 방문 /94.11.4 279 / 220
- 안동교도소 최태호이경 사망사건-유족들 타살 의혹 제기/94.11.4 279 / 221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94.11.4 279 / 221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94.11.5 280 / 222
- 최태호이교 의문사 의혹 증폭, 대책위결성, 항의집회/94.11.17 288 / 241
- 최태호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요구 관철/94.11.18 289 / 242
- 최태호이교 재부검, 사망전 구타가능성 질어/94.11.22 291 / 246
- 최이교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94.11.24 293 / 250

교육

- '만들레의 합창',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어린이의 꿈과 희망 담아/94.10.11 261 / 180
- 학교비리 다른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94.10.19 267 / 191
-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94.10.21 269 / 195
- 홍사단, 학생의 날 기념식/94.11.8 281 / 225
- 동일여고 졸업생 피켓시위/94.11.9 282 / 227
- 반성문 안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94.11.12 285 / 234

<두밀리분교>

- 두밀리분교후원회 재판방청, 토론모임등 추진/94.7.14 205호 / 48
- 전국교대생 온나라 걷기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중점/94.7.15 206 / 51
-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지지방문/94.7.23 212 / 66
- '두밀리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기자회견/94.8.5 221 / 89
- 재판부 두밀리분교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94.9.28 253 / 157
- 두밀리 살리기 기금한마당/94.10.19 267 / 192
-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글/94.10.19 267 / 192
-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94.10.26 272 / 203
- 사건으로 되집어 본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운동/94.11.22 291 / 247

<전교조>

- 황낙주 현 국회의장, 진해여상 9명 교사복직 및 배상금지급 외면/94.7.9 202 / 41
- 어린이 여름학교, 전교조 초등지부/94.7.16 207 / 54
- 서울시 교육청, 이수호씨등 8명 임용대상 제외/94.8.13 227 / 100
- 전교조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94.11.24 293 / 251

국가보안법

- 92년 전대협 조통위장 징역 2년 선고/94.7.16 207 / 54
- 부경총련 조통위원장 국보 위반혐의 조사/94.7.28 215 / 73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피소, 부경총련 손해청구도 계획중/94.8.24 233 / 113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94.8.11 225 / 96
-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B규약위배/94.8.11 225 / 97
- 전국연합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94.9.6 242 / 134
- 국제사면위 한국·일본지부 인권교육 마련/94.9.7 243 / 135
- 범민족대회 관련 전국연합 최규엽씨 조사받고 풀려나/94.9.13 247 / 146

-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94.9.15 249 / 149
-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국보법 위반 성명서/94.9.29 254 / 160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해 긴급구속/94.10.7 259 / 174
-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련 10주년 기념식/94.10.11 261 / 181
-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94.10.18 266 / 190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94.10.25 271 / 200
-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중식 촉구/94.10.26 272 / 202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94.11.2 277 / 216
-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싸, 한총련 조총위위원장 연행/94.11.8 281 / 225
-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94.11.24 293 / 281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등 요구/94.7.29 216 / 74
- 공안문제연구소, 4년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94.7.30 217 / 77
-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94.8.3 219 / 84
- 경상대교수에 소환장 발급/94.8.4 220호 / 86
- 참고자료 : 『한국사회의 이해』 차례/94.8.4 220 / 87
-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기자회견/94.8.5 221 / 88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94.8.5 221 / 89
- 서부경남지역 21개 단체, 학문의 자유 보장 촉구/94.8.6 222 / 90
- 인터뷰 : 김의동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94.8.6 222 / 90
-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94.8.6 222 / 91
- 중앙일보 8월3일자 사설, '붉은 교수 사실인가'/94.8.6 222 / 91
-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94.8.6 222 / 91
-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94.8.9 223 / 93
-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94.8.10 224 / 94
-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94.8.10 224 / 94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등 견해/94.8.10 224 / 94
- 영·호남 지역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즉각 중지 요구/94.8.11 225 / 97
-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AI/94.8.12 226 / 98
-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94.8.13 227 / 100
-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94.8.17 228 / 103
-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폐' 서명운동 본격화/94.8.17 228 / 103
- 경상대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94.8.18 229 / 104
-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 총장에 항의서한/94.8.19 230 / 107
- 민교협, "박홍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요구/94.8.20 231 / 108
- 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94.8.20 231 / 108
- 폐강항의 경상대 방문/94.8.23 232 / 110
-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94.8.25 234 / 115
- 경상대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교수 90인 성명/94.8.25 234 / 115
-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 시도/94.8.25 234 / 114
-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공대위/94.8.26 235 / 116

- 강좌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94.8.26 235 / 118
- 경상대교수,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94.8.27 236 / 120
- 김영삼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94.8.30 237 / 121
- 경상대교수 구인 용할 것/94.8.30 237 / 121
- 검찰 경상대교수 영장제청구 방침 비난 빚발/94.9.1 239 / 127
- 민교협 성명서;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94.9.1 239 / 128
- 최인석 판사 『한국사회의 인식』 교수 영장 기각 사유전문/94.9.1 239 / 128
- 검찰 경상대교수 소환수사 /94.9.10. 246 / 143
- 경상대 교수 3백11명 사법처리 반대/94.9.14 248 / 147

<구국전위>

-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94.7.30 217 / 76
- 영등포교도소, 안재구씨 면회제한/94.8.6 222 / 91
- 안재구씨 첫 공판 열려/94.9.29 254 / 89
- 「구국전위」 재판 공정성 우려/94.9.15 249 / 144
- 안재구씨 반국가단체구성등 공소사실 부인/94.10.20 268 / 194
- 안재구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94.11.18 289 / 242
-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AI/94.11.25 294 / 252

<94년 신공안정국>

-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94.7.14 205 / 48
-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94.7.16 207 / 54
- 한총련, 박홍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94.7.20 209 / 59
-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94.7.22 211 / 63
- 평불협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94.7.22 211 / 63
- 한교협 인권위, 전대협 동우회등 "사과해명 요구"/94.7.22 211 / 63
- '분향소' 합수부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94.7.27 214 / 71
- '사진촬영 안했다' 증언경관 진술번복, '전남대 분향소' 수사관/94.7.27 214 / 71
- "학생들은 신공안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94.7.29 216 / 75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94.8.11 225 / 96
- 이창복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본격화/94.8.11 225 / 97
- 신공안정국 기획(1)/10일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94.8.11 225 / 96
- 신공안정국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여관등에서 고문/94.8.12 226 / 98
- 신공안정국의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94.8.12 226 / 99
-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처벌 요구, 변협/94.8.18 229 / 105
-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94.8.18 229 / 105
- 이창복, 황인성씨 검찰송치/94.8.19 230 / 107
- 이창복·황인성씨 석방촉구, AI 입장 발표/94.8.19 230 / 106
-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감절, 22일 민주당 집계통계/94.8.23 232 / 110
- 신공안정국 돌파논의, 민가협 수련회/94.8.25 234 / 114
-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제우고 수사/94.8.26 235 / 116
-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유초하교수3등 수배/94.8.27 236 / 118

-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94.8.30 237 / 121
- 민정련간부 긴급구속/94.8.30 237 / 121
-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 시작, 재판공정성 우려/94.9.1 239 / 127
-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긴급구속/94.9.7 243 / 135
- 창간 1주년 기념 기획1-신공안정국과 국보법(이덕우)/94.9.7 243 / 136
- 이창복·황인성 6일 기소/94.9.7 243 / 137
-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94.9.8 244 / 139
- 6-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645명 민가협 발표/94.9.9 245 / 142
- 김주석 애도 표명 대학생 구속/94.9.10 246 / 144
- 전국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의 금지/94.9.13 247 / 145
- 충북대교수협 유초하교수 수배해제 촉구/94.9.15 249 / 150
- '진보운동탄압반대 교수모임' 유초하교수 수배해제 촉구/94.9.16 250 / 152
- 노민문연 회원등 8명 연행, 이적단체 규정/94.9.28 253 / 158
- 유초하교수, 안기부에 자진출두/94.10.19 267 / 192
- 각계인사 1천여명 국보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중식 촉구/94.10.26 272 / 202
- 「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94.11.1 276 / 213
- 이창복씨 첫공판, 판사가 일방적 연기/94.11.2 277 / 216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4년구형/94.11.22 291 / 246

<김삼석씨 남매사건>

- 서울고법, 김삼석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94.7.8. 201 / 39
- 대법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94.10.27 / 273 / 205
- 안기부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남매사건 조작 확인/94.11.1 276 / 213
- 안기부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 자료요약/94.11.2 277 / 217
- 배인오씨 양심선언 현지조사 결과발표/94.11.10 283 / 228
- 백홍용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94.11.11 284 / 230
- 민가협·전국연합등 안기부앞 항의집회/94.11.11 284 / 231
- 백홍용씨 자술서/94.11.11 284 / 232
- 백홍용씨 베를린 현지조사보고서(요약)와 독일 현지신문 보도/94.11.15 286 / 237
- AI 전 남한 안기부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석방 재요청/94.11.18 289 / 243
- 백홍용, 김삼석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94.11.25 294 / 252
- 백홍용씨가 '김삼석,은주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94.11.25 294 / 253

<김일성주의청년동맹>

- 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혐의 구속/94.8.2 218 / 81
-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94.8.4 220 / 86
- 서울시경,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94.8.5 221 / 91
-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씨 가족/94.8.6 222 / 91
- "김청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복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94.8.6 222 / 91
-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94.8.23 232 / 111
- 김청동 기소, 1명 석방/94.8.25 234 / 115
- 김청동사건, 피의자들 김청동결성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94.11.17 288 / 240

<민정련>

- 민정련간부 긴급구속/94.8.30 237 / 121
- 민정련 회원, 기무부대에 연행/94.10.20 268 / 193
- 민정련회원 7명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94.11.3 278 / 218

<사노맹>

-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94.7.14 205 / 48
- 민정련회원 7명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94.11.3 278 / 218

<샘>

- 국보법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단체 3명 구속/94.9.8 244 / 138
- 경찰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94.9.9 245호 / 141
- 샘활동 참가 고등학생 중징계/94.9.9 246 / 143
- 청소년단체 「샘」 기자회견/94.9.29 254 / 160
- 샘,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94.10.18 266 / 190
- 「샘」 첫 공판, "공포분위기에 경찰조사 받았다" /94.10.19 267 / 191
- 「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94.11.1 276 / 213
- 「샘」회장 2차공판/94.11.12 285 / 233
- 「샘」회원 강천규, 민사지법에 동아일보상대로 정정보도청구/94.11.12 285 / 233
- 「샘」사건 김용우씨 2차공판/94.11.16 287 / 238

<황석영씨 방북사건>

- 황석영씨 환송심 첫공판/94.8.19 230 / 107
-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황씨 7년 선고/94.9.28 253 / 158
- 대법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원심확정, 황씨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94.10.27 273 / 205

국제

- 창간 1주년 특집4-국제인권, 자결권 -프랑스 카나키의 자결권 침해/94.9.10 246 / 144
- 방글라데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94.9.30 255 / 163
-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94.10.6 258 / 173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94.10.12 262 / 182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94.10.26 272 / 203, 204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94.10.27 273 / 206
-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등 핵심조항유보/94.10.29 275 / 209
- 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중/94.11.3 278 / 219
- 인도어민 무기한 파업돌입, 외국어선 조업금지 요구/94.11.10 283 / 229
- 95년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타이 방콕/94.11.23 292 / 249
-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타이 방산/94.11.23 292 / 249

<국제사면위원회>

- 94년 AI 연례보고서(1)/94.7.8. 201 / 40

- 94년 AI 연례보고서(2)/94.7.9 202 / 42
- 94년 AI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94.7.12 203 / 44
-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94.7.22 211 / 63
- AI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열려/94.7.26 213 / 68
- 문국진씨 유엔 고문희생자원호기금 받아, AI 연례보고서/94.7.28 215 / 72
-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의 대체요구/94.7.28 215 / 73
- '94년 AI 아태지역대회 병행행사 일정/94.7.29 216 / 75
- 서준식대표 강연, AI '양심수의 밤'에서, 사회권 영역등 시야확대 질실/94.7.30 217 / 76
- AI,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표명/94.8.2 218 / 81
- AI 국제사무국, "언론, 남한 인권무시" 유감표명/94.8.3 219 / 84
- AI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양심수의 밤" 연설문/94.8.3 219 / 85
- AI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94.8.3 219 / 85
- 국보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AI/94.8.12 226 / 98
- 이창복·황인성씨의 석방 촉구, AI 연이어 입장 발표/94.8.19 230 / 106
- AI 한국지부 「한·일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 /94.9.13 247 / 145
- 단체탐방 31 - AI 한국지부/94.9.17 251 / 154
- AI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94.9.30 255 / 161
- AI 10.9-25일 한국방문/94.9.30 255 / 161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AI 본부, 한국지부/94.10.8 260 / 177
- AI,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94.10.11 261 / 181
-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등 방문실태 조사/94.10.22 270 / 197
- AI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표명/94.11.3 278 / 219
- AI,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94.11.10 283 / 229
- AI-전 남한 안기부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석방 재요청/94.11.18 289 / 243
-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AI/94.11.25 294 / 252
- 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94.11.29 296 / 258
-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배포/94.11.30 297 / 260

<사회개발정상회의>

-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94.7.9. 202 / 41
- 사회발전 세계정상회의 대비,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94.7.26 213 / 68
- 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94.8.23 232 / 110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2차준비위 개막/94.8.26 235 / 117
-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개최/94.9.14 248 / 147
-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94.9.16 250 / 151
- 가난·고용·실업등 주제 검토,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운영위/94.9.27 252 / 156
- 한국민간단체, 동티모르 인권문제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표명/94.11.15 286 / 236
- '인권위원회' 설립·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참여연대등 APEC에 요구/94.11.16 287 / 238
- 국제인권소식-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성명서(요약)/94.11.16 287 / 239

<동티모르>

- 동티모르에서 '실종' 및 살해 계속, 호주 「티모르의 빛」 긴급호소문/94.8.4 220 / 87

- 엠네스티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94.9.30 255 / 161
- 한국민간단체, 동티모르 인권문제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표명/94.11.15 286 / 236
-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추모집회/94.11.3 278 / 219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94.11.30 297 / 259

<북경여성대회>-----> 여성

<아태지역인권워크샵>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94.7.8. 201 / 40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일정/94.7.13 204 / 47
- 아시아지역 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등 논의/94.7.13 204 / 47
- 특집1-지역인권기구란?/94.7.14 205 / 49, 50
- 특집 2-국민인권기구란?/94.7.15 206 / 52, 53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개막/94.7.19 208 / 56
- 특집 3-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94.7.19 208 / 57, 58
-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94.7.19 208호 / 58
- 특집 4-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94.7.20 209 / 60
- 아태지역 인권포럼 정례화 합의, 20일 폐막/94.7.20 209 / 61
- 특집 5-평가와 반성/94.7.22 211 / 64

<오월광장어머니회>-----> 불처벌

<국제여성>

- 아시아여성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94.11.10 283 / 229
- 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94.11.30 297 / 260

<유엔관련기구>

- 문국진씨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94.7.28 215 / 72
-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94.8.24 233 / 113

<인권고등판무관>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94.7.19 208 / 56
-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94.7.20 209 / 60

<유엔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94.10.14 264 / 186

<해외단체활동>

-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련 10주년 기념식/94.10.11 261 / 181
-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등/94.10.14 264 / 186

노동

- '수배해제등 강입조치 철회',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94.7.15 206 / 51
- 현대중공업 긴급조정권 발동음지임 철회촉구/94.7.22 211 / 65
-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94.7.28 215 / 72
- "UR비준보다 가뭄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노대/94.7.29 216 / 74
- 서울대병원 노조원복직등 잠정합의/94.7.29 216 / 74
- 신공안정국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여관등에서 고문/94.8.12 226 / 98
- 노동법 교실 개최/94.8.20 231 / 108
- 포항제철 노조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94.9.1 239 / 128
- 현중 고소·고발 취하 약속 안 지켜, 전노대/94.9.8 244 / 139
-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94.9.13 247 / 146
- 남재희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94.9.15 249 / 150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94.10.7 259 / 175
-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출범/94.11.5 280 / 222
-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94.11.9 282 / 227
- 민주노총건설 의지를 결집할 전국노동자대회/94.11.12 285 / 233
- 손봉헌 현대정공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94.11.12 285 / 234
- 민주노총준비위 발족, 13일 노동자대회에서/94.11.15 286 / 236
-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94.11.30 297 / 260

<산업재해>

-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94.7.23 212 / 66
- 부산·경남지역 산재노동자 급증, "올 9천여명"/94.7.27 214 / 70
-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 부터 시행, 노동부/94.7.28 215 / 72
-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94.8.13 227 / 100
-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94.9.2 240 / 130
-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94.10.5 257 / 171
-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94.11.8 281 / 224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 YMCA/94.8.26 235 / 116
- YMCA,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열어/94.8.30 237 / 120
- 창간1주년특집5-외국인노동자/인터뷰-김재오/94.9.13 247 / 146
-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94.10.6 258 / 173
- 14일 고난모임,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94.10.15 265 / 188
- '현대판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94.10.26 272 / 202
- 지상중계-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94.10.28 274 / 208
-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94.10.28 274 / 207
-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홍보제대로 안돼/94.11.16 287 / 238
-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94.11.26 295 / 254

<원진레이온>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원진대책위 집회/94.7.12 203 / 43
- 단체탐방 28/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94.8.13 227 / 101
-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중/94.9.6 242 / 133
-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 대회/94.9.2 240 / 130
- 원진비대위 대통령에 원진문제 해결 촉구 서한/94.9.15 249 / 150
- 원진문제 노동부 왜곡/94.9.17 251 / 153
- 문전박대 당하는 원진노동자, 재취업알선장도 소용없어/94.10.5 257 / 170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94.10.5 257 / 171
- 원진폐업후 취업자는 겨우 29명/94.10.5 257 / 170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94.10.26 272 / 203
- 원진직업병환자 또 사망,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94.11.26 295 / 285

<전해투>

- 불벌터위에도 계속되는 전해투 텐트농성/94.7.28 215 / 73
- 전해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94.7.26 213 / 69
- 전해투 하계수련회/94.8.17 228 / 103
- 한가위맞아 찾아간 전해투 농성장/94.9.17 251 / 153
-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94.11.23 292 / 248
-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자 가족 연행/94.11.25 294 / 252

<지하철, 철도파업>

- 구속 철도노동자 석방요구, 8일째 금식기도회/94.7.9. 202 / 41
- "노조원 대량징계 철회하라", 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94.7.13 204 / 47
- 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시민·여성단체 토론회/94.7.19 208 / 56
-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 징계철회 안될 경우 재파업/94.7.20 209 / 59
-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94.7.27 214 / 70
- "협상 불응할 경우 15일 이전 재파업", 서울지하철 노조/94.7.27 214 / 71
- 철도청장 사퇴촉구, 철도·지하철 3종단 대책회의/94.7.29 216 / 74
- 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94.8.20 231 / 108
-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등 강력 항의/94.9.3 241 / 131
-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재차 항의/94.9.6 242 / 134
-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94.9.7 243 / 137
- 지하철 13일부터 시한부 파업 밝혀/94.9.9 245 / 141
- 철도노동자를 위한 하루차집, 불교인권위/94.10.15 265 / 187

<한국자보>

- 중노위, 자보간부 29명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94.7.29 216 / 75

노인, 아동

-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94.10.11 261 / 181

농민

-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UR 비준강행 철회, 재협상 촉구/94.7.28 215 / 73
- "UR비준보다 가뭄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노대/94.7.29 216 / 74
- UR비준 계획 철회 촉구, 전농/94.7.29 216 / 74

단체탐방

- 단체탐방 25/한국사회정책학회/94.7.16 207 / 58
- 단체탐방 26/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94.7.23 212 / 67
- 단체탐방 27/대한성공회 '나눔의 집'/94.7.30 217 / 77
- 단체탐방 28/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94.8.13 227 / 101
- 단체탐방 29/전국장애인국가협회/94.8.20 231 / 109
- 단체탐방 30/외국인 노동자 피난처/94.8.27 236 / 119
- 단체탐방 31/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94.9.3 241 / 132
- 단체탐방 32/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94.10.8 260 / 179
- 단체탐방 33/서울지역공부방연합/94.11.5 280 / 223
- 단체탐방 3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94.11.12 285 / 235
- 단체탐방 35/참사랑 쉼터/94.11.19 290 / 245

도시민민

- 백골단 집단구타 철거민연합 평화집회 이수라장/94.9.6 242 / 134

미군범죄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공청회 발표문 요약)/94.9.30 255 / 162, 163
-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94.10.6 258 / 172
-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94.11.5 280 / 222
- 동두천시민회, 미군상대 단식농성, 거리서명/94.11.8 281 / 225
- 동두천시, 미군지프피해자 배상금 지급위해 노력하기로/94.11.11 284 / 231
-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94.11.22 291 / 246

<윤금이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94.11.3 278 / 218
-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94.11.3 278 / 218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미군범죄근절본부, 김분임씨 살해범 검거촉구/94.7.19 208 / 86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공청회 발표문 요약)/94.9.30 255 / 162, 163
-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94.10.6 258 / 172
-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94.11.3 278 / 218
- "세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처벌하라", 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94.11.9 282 / 226

법제

-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94.7.8 201 / 39
-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 법대협 창립/94.9.8 244 / 39
- 경실련 「검찰개혁 공청회」, "검찰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94.7.12 203 / 43
- 기소권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경실련 토론회/94.11.8 281 / 225
-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김동한)/94.11.16 287 / 239
- 집중심리 오용, 지존파·사법정의토론회/94.11.22 291 / 247
-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발간/94.11.30 297 / 260

<긴급구속>

- 긴급구속장 남발, 즉속수사 비난/94.8.11 225 / 97
- 민정련간부 긴급구속/94.8.30 237 / 121
-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긴급구속/94.9.7 243 / 135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해 긴급구속/94.10.7 259 / 174
-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민교협 성명서)/94.10.11 261 / 181
- 민교협, 안기부장에 공개사과 요구/94.10.11 261 / 180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94.10.15 265 / 187
- 긴급구속, 경찰·검찰·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94.10.18 266 / 189
- 인권침해 우려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성명/94.10.20 268 / 194
- 긴급구속후 영장청구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94.10.20 268 / 193
- 인터뷰 : 박세경 변호사-긴급구속을 해부한다/94.10.21 269 / 196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94.10.25 271 / 200
-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94.10.25 271 / 200
-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94.11.24 293 / 251

<사형제도>

- 사형폐지법, "흉악범죄 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94.10.7 259 / 175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94.10.8 260 / 177
-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94.10.15 265 / 188
- 집중심리 오용, 지존파·사법정의토론회/94.11.22 291 / 247
- 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94.11.29 296 / 258

<손해배상청구소송>

- 고문피해자, 국가상대 손해소송/94.7.13 204 / 46
-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94.8.24 233 / 112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손해청구도 계획중/94.8.24 233 / 113
-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 조선일보상대 손해 청구소송 /94.10.20 268 / 194

<헌법재판소>

-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94.8.30 237호 / 121
-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94.8.31 238 / 122

-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94.9.2 240 / 129
- ‘헌법재판관 임명청문회 반드시 필요’, 설문결과/94.9.2 240 / 130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참여연대민변 촉구/94.9.8 244 / 138
- 대한변협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문/94.9.8 244 / 139
- 안우만-정경식 현재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94.9.13 247 / 146
-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현재 재판관 임명/94.9.14 248 / 148
- 민변등;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94.9.14 248 / 148
-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94.9.16 250 / 152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94.9.29 254 / 160

북한인권

- 94년 AI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94.7.12 203 / 44, 45
- 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94.8.23 232 / 110
-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94.11.30 297 / 260

불처벌

- 고문피해자, 국가상대 손해소송/94.7.13 204 / 46
- 합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94.9.6 242 / 133
-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등/94.10.14 264 / 186

<12·12사건>

- 12·12 기소유예는 검찰 직권남용, 대한변협 12·12 사건토론회/94.11.9 282 / 227
- 검찰청 항의시위등 12·12 기소조치 촉구/94.11.12 285 / 234
- 12.12 기소위해 12.12까지 매일 대검앞 항의집회/94.11.17 288 / 240

<오월광장어머니회>

- 5월광장 어머니회, 김선명씨 석방촉구운동 벌여/94.7.19 208 / 56

<정신대>

-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 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94.7.9. 202 / 42
- 국제중재재판소관?/94.7.21 209 / 62
-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94.7.26 213 / 69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영화 제작/94.7.27 214 / 71
- 기록영화제작소 모임, 128차 정대협 수요시위 주관/94.7.28 215 / 73
-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선행 촉구, 대한변협/94.8.10 224 / 94
-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94.8.24 233 / 113
-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94.9.3 241 / 131
-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등 권고/94.9.6 242 / 133
-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문/94.9.6 242 / 134
-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94.10.14 264 / 186
- 국제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등 촉구/94.11.23 292 / 148

-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요약)/94.11.23 292 / 149

<정대협>—→여성

<조작간첩사건>

-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94.11.2 277 / 216
- 부산신씨일가 사건 재심청구나서, 천주교 조작간첩사건진상규명대책위/94.11.18 289 / 243
-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94.11.29 296 / 258

사회보장권

-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94.9.3 241 / 131

양심선언, 군

- 상남비리 고발 전 경자 파면처분취소 소청, 참여연대 동참/94.9.7 251 / 153
- 참여연대, 내부리비제보자 보호법 청원/94.10.29 275 / 210
- 파출소 비리폭로경관 파면처분 지나치다, 총무처 소청심사위/94.11.15 286 / 236
- ‘내부리비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94.11.24 293 / 281
- 윤석양 출소환영회 열려/94.11.19 290 / 244

<양군모>

- 병무청의 약속파기-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위기/94.11.4 279 / 220
-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문제 해결약속/94.11.22 291 / 246
- 대학원학력자, 89년 3월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94.11.26 295 / 284

양심수, 장기수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94.7.8. 201 / 39
- 5월광장 어머니회, 김선명씨 석방촉구운동 벌여/94.7.19 208 / 86
- 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94.8.9 223 / 92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94.8.11 225 / 96
-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94.8.17 228 / 103
- 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94.8.23 232 / 110
- 합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94.9.6 242 / 133
- 전국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외 금지/94.9.13 247 / 145
- 재일정치범 류정석씨 면회 외국인 이유로 거부/94.9.7 251 / 153
-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94.9.27 252 / 155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94.11.2 277 / 216
- 합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94.11.19 290 / 244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 강기훈씨 17일 새벽 만기출소/94.8.17 228 / 102

- 인터뷰 : 강기훈씨/94.8.17 228 / 103
- 강기훈씨 어머니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출간/94.9.14 248 / 147
- 강기훈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94.10.7 259 / 175
- 강기훈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허위공문서 작성부분)/94.10.7 259 / 176
- 강기훈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위증부분)/94.10.8 260 / 178
- 함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94.10.29 275 / 210

<조작간첩사건>---->불처벌

여성

-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여성노동자회/94.8.9 223 / 93
- 광고시간확대 여성상품화 가속, 민우회 성명/94.9.15 249 / 150
- 전국여성대회 열려/94.10.15 265 / 188
-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94.11.30 297 / 260

<가정폭력>

- 부친살해혐의 여대생 양애리씨에 7년 선고/94.10.27 273 / 205

<북경여성대회>

- NGO한국위원회 북경대회 발전전략세미나/94.10.8 260 / 177
- 인터뷰 : NGO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미경씨/94.10.12 262 / 183

<이순심씨 사건>

-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94.9.7 243 / 135
- 이순심씨 항소심/94.9.8 244 / 139
- 이순심씨 자녀 증인신문/94.9.29 254 / 160

<성폭력, 성희롱일반>

-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림터」 문열어/94.9.13 247 / 145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94.9.15 249 / 150
-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94.9.30 255 / 161
-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94.10.6 255 / 172
-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94.10.6 258 / 173
-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 공개모집/94.10.12 262 / 183
- 친고죄 폐지,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94.10.13 263 / 184
- 민우회,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발간/94.11.9 282 / 227
- 성희롱, 권력에 의한 것, 남녀고용평등 토론회/94.11.10 283 / 229
-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94.11.26 295 / 286

<서울대 우조교사건>

-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94.7.13 204 / 46

- 성모욕 사건 항소심 공판/94.8.24 233호 / 113
- 우조교 항소심 3차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94.10.12 262 / 182
-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94.10.13 263 / 185
-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94.10.14 / 186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림터」 문열어/94.9.13 247 / 145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94.9.15 249 / 150
-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94.11.26 295 / 256

<여성민우회>

- 전문상담교육 실시/94.7.29 216 / 75
- 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94.8.18 229 / 105
- 광고시간확대 여성상품화 가속, 여성민우회 성명/94.9.15 249 / 150
-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발간/94.11.9 282 / 227

<정대협>

-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94.7.21 210 / 61
- 청와대 면담요구 강제해산 항의서한/94.7.22 211 / 65
-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94.8.4 220 / 86
-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94.8.24 233 / 112
-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토론회/94.8.30 237 / 121
-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94.9.2 240 / 129
- 군위안부 해결위해 일본 방문/94.9.16 250 / 152
-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회견 일본인론 관심 많아/94.9.30 255 / 163
- 일본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운동 시작/94.10.26 272 / 202
- 외무부,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해' 기존입장 재확인/94.10.29 275 / 210
-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94.11.24 293 / 250
- 일본군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94.11.29 296 / 287

<지탁연>

- 일본 탁아시설 방문/94.7.23 212 / 66

<한국여성의 전화>

- 켈거리 여성단체 방문/94.7.15 206 / 51
- 여성의 전화 강서지부 개소/94.9.27 252 / 155
- 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94.8.18 229 / 105
- 여성문제 요약한 여성수첩 95년판 발행 /94.10.15 265 / 188

인권교육

- AI 한국·일본지부 인권교육 마련/94.9.7 243 / 135

- AI 한국지부 「한일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94.9.13 247 / 145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94.10.12 262 / 182
-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서준식)/94.10.22 270 / 198, 199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94.10.22 270 / 197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94.10.26 272 / 203, 204
-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타이 방산/94.11.23 292 / 249

인권단체

<고난모임>

- 8월 3주간 통일학교 개최/94.7.28 215 / 73
-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94.10.15 265 / 188

<교회협 인권위>

- 전대협 동우회등 "사과해명 요구"/94.7.22 211 / 63
-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방문 및 세미나 참석/94.9.29 254 / 159
- 장애인위, 일본장애인시설등 방문/94.10.6 258 / 173
-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94.11.17 288 / 241

<대한변협>

-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선행 촉구/94.8.10 224 / 94
-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처벌 요구/94.8.18 229 / 105
-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94.8.31 238 / 122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94.9.8 244 / 138
-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94.9.3 241 / 131
-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문/94.9.8 244 / 139
- 안우만·정경식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94.9.13 247 / 146
-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94.9.14 248 / 148
- 『인권보고서』 8집 발간/94.10.1 256 / 167
-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94.10.21 269 / 195
- 기소유예는 검찰 직권남용, 12·12 사건토론회/94.11.9 282 / 227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고문

<민가협>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94.7.8. 201 / 39
-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94.7.16 207 / 54
- "학생들은 신공안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94.7.29 216 / 75
-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94.8.19 230 / 107
- 신공안정국 돌파논의, 민가협 수련회/94.8.25 234 / 114
- 창간 1주년 특집 3 -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인터뷰-채은아간사/94.9.9 245 / 142
- 6-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645명 민가협 발표/94.9.9 245 / 142

- 55차 목요집회/94.10.7 259 / 175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94.11.2 277 / 216
- 57차 목요집회/94.11.4 279 / 220
-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94.11.11 284 / 231
-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94.11.26 295 / 286

<민교협>

-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등 학계공동대응키로, 정정보도 요청/94.8.5 221 / 88
- 『공동대책준비위』 결성/94.8.6 222 / 90
- 비상임시총회, 경시대교수 수사증단 촉구/94.8.13 227 / 100
- "박홍총장 사퇴", "경시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요구/94.8.20 231 / 108
- 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94.8.20 231 / 108
-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94.8.30 237 / 121
- 성명서;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94.9.1 239 / 128
- 안기부장에 공개사과 요구/94.10.11 261 / 180
-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성명서)/94.10.11 261 / 181
- 인권침해 우려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성명발표/94.10.20 268 2 / 194

<민변>

-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94.8.31 238 / 122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촉구/94.9.8 244 / 138
-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94.9.14 248 / 148
-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94.9.28 253 / 157

<불교인권위>

-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94.8.20 231 / 108
-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항의/94.9.3 241 / 131
-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재차 항의/94.9.6 242 / 134
- 철도노동자를 위한 하루찾집/94.10.15 265 / 187

<서울지방변호사회>

-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94.9.17 251 / 153
- 시민인권상 수상식/94.9.27 252 / 155
-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94.10.5 257 / 171

<유가협>

-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94.8.24 233 / 112
- 총회 신임회장 선출/94.9.27 252 / 155
- 조정식역사 12일 추모비 개막/94.10.15 265 / 188
- 국회의원사당 앞 시위,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94.10.22 270 / 197
-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94.11.4 279 / 220

-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94.11.4 279 / 221
-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94.11.5 280 / 222

<인권운동사랑방>

- 서준식대표 강연, AI '양심수의 밤'에서, 사회권 영역등 시야확대 절실/94.7.30 217 / 76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94.10.22 270 / 197
-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서준식)/94.10.22 270 / 198, 199
- 아시아여성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94.11.10 283 / 229
- 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94.11.30 297 / 260

<인권협>

- 집행위 열려/94.8.3 219 / 84
- 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94.8.23 232 / 110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94.10.12 262 / 182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94.10.26 272 / 203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94.10.27 273 / 204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94.11.30 297 / 259

<천주교인권위>

- 연례모임 /94.10.5 257 / 171
-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94.11.2 277 / 216
- 부산산씨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대책위/94.11.18 289 / 243
-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94.11.29 296 / 258

인권일반

- 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시민·여성단체 토론회/94.7.19 208 / 56
- 여대협, 제일동포 폭행사건 대책수립 촉구/94.8.2 218 / 81
- 정부, A규약 보고서 검토회 연기 요청/94.8.4 220 / 8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간활동 연수/94.9.10 246 / 143
- 서울변회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94.9.17 251 / 153
- 시민인권상 수상식/94.9.27 252 / 155
-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참여연대 토론회/94.9.28 253 / 158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94.10.1 256 / 167
-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94.10.5 257 / 171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94.10.22 270 / 197
-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연노련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94.10.25 271 / 201
- 에이즈감염자단체 「스톱에이즈운동본부」 발족/94.10.25 271 / 201
- 전교조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94.11.24 293 / 281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94.11.26 295 / 255

<언론의 인권침해>

-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등 정정보도 요청/94.8.5 221 / 88
- 고 김남주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94.9.2 240 / 130
- 샘,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94.10.18 266 / 190
-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94.10.25 271 / 200
-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 조선일보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94.10.20 268 / 194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94.10.25 271 / 201
- 「샘」회원 강친규, 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 /94.11.12 285 / 233
-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94.11.30 297 / 260

<전국연합>

- 이창복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본격화/94.8.11 225 / 97
- 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94.8.19 230 / 107
-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94.8.18 229 / 105
- 이창복·황인성씨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입장 발표/94.8.19 230 / 106
-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94.9.6 242 / 134
- 이창복·황인성 6일 기소/94.9.7 243 / 137
- 범민족대회 관련 전국연합 최규엽씨 조사받고 풀려나/94.9.13 247 / 146
- 이창복씨 첫공판, 판사가 일방적 연기/94.11.2 277 / 216
- 부패무능정권 규탄집회/94.11.8 281 / 225
-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94.11.11 284 / 231
- '인권위원회' 설립·민간사회단체 참여, APEC에 요구/94.11.16 287 / 238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4년구형/94.11.22 291 / 246

<환경>

- '94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위원회 결성/94.7.22 211 / 65
-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94.8.18 229 / 105
- 30개 환경·사회단체 반핵운동본부 결성/94.11.24 293 / 281

<인권하루소식>

- 창간 1주년, 문민적 정부 '인권파수꾼' 역할/94.9.7 243 / 135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창간 1주년 특집 2 - 장애인 /인터뷰-김성재/94.9.8 244 / 140
- 7기 장애우대학 개설/94.9.27 252 / 155
-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 토론회/94.9.29 254 / 159
-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방문 및 세미나 참석/94.9.29 254 / 159
- 빈민장애인 삶 사진전,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94.10.1 256 / 167
-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인시설등 방문/94.10.6 258 / 173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토론회/94.10.14 264 / 186
-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회/94.11.19 290 / 244

<장애인일반>

-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주민편견 극복되어야/94.7.27 214 / 71
- 단체탐방 29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94.8.20 231 / 109

<장애인취업>

-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94.8.27 236 / 118
- 공무원 임용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94.8.27 236 / 118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94.9.8 244 / 140

행형실태

- 영등포교도소 폭염속 2명의 재소자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94.8.3 219 / 84
- 영등포교도소복역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배소송제기/94.8.6 222 / 91
- 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94.8.9 223 / 92
-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94.9.28 253 / 157
- 민변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94.9.28 253 / 157
-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94.10.21 269 / 195
-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94.11.25 294 / 252

부록 : 『인권하루소식 합본 I, II, III』 색인
(준비 1호 - 제300호)

부록 : <인권하루소식> 합본 I-III호 색인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합본3호(준비1호-300호)를 펴내면서 게재되었던 기사를 주제별로 색인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색인작업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나다순). 이전에 나온 합본 1, 2호에 실린 색인도 합쳐 보완·수정하였습니다. 합본 1호는 I, 합본2호는 II로 표기하고, 합본3호는 그냥 쪽수로 표기하였습니다.

<색인순서>

- 298 /경찰폭력, 안기부 - <김기웅 순경사건> <김춘도순경 사망-배병성씨 사건> <기타>
 299 /고문, 가혹수사 - <고문후유증>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의문사>
 301 /교육 - <두밀리분교> <전교조>
 302 /국가보안법 - <경상대 『한국사회의이해』 사건> <구국전위사건> <94년 신공안정국사건>
 <김삼석씨 남매사건> <김일성주의청년동맹사건> <노태훈씨 사건> <민정련> <사노맹> <샘>
 <자민통 사건> <출판인 구속> <PC 통신> <혁사노> <황석영씨 방북사건> <희망새>
 311 /국제 - <국제앰네스티> <사회개발정상회의> <동티모르> <아태지역인권위크샵> <국제-여성일반> <오월광장어머니회----> <불처벌> <북경여성대회----> <여성> <유엔관련기구> <유엔인권위원회> <인권고등판무관> <해외단체활동>
 319 /노동 - <산업재해> <외국인노동자> <원진레이온> <전해투> <지하철, 철도파업> <한국자보>
 325 /노인, 아동
 325 /농민
 326 /단체탐방
 327 /도시빈민
 327 /미군범죄 - <윤금이사건> <주한미군군절운동본부>
 328 /법제 - <긴급구속> <사형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헌법재판소>
 331 /북한인권
 331 /불처벌 - <12·12> <오월광장어머니회> <5.18> <삼청교육대> <정신대> <정대협----> <여성> <조작간첩사건>
 333 /사회보장권
 334 /수배해제, 사면, 복권
 334 /양심선언, 군 - <양군모>
 336 /양심수, 장기수 -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조작간첩사건----> <불처벌>
 339 /여성 - <가정폭력> <북경여성대회> <이순심씨 사건> <성폭력, 성희롱 일반> <서울대 우조교사건>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정대협> <지탁연> <한국여성의 전화>
 345 /인권교육
 345 /인권단체 - <고난모임> <교회협인권위> <대한변협>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고문> <민가협> <민교협> <민변> <불교인권위> <서울지방변호사회> <유기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협> <천주교인권위>
 353 /인권일반 - <언론의 인권침해> <전국연합> <통신비밀> <환경> <인권하루소식>
 356 /장애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육> <장애인 취업> <장애인접근권> <장애인 접근권>
 358 /행형실태

경찰폭력, 안기부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 장애인 무차별 구타/93.8.26 /I- 56
-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김귀정씨 손해배상 청구/93.9.24 /I- 103
-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결의대회/93.10.26 /I- 144
- 경찰, 23일 원진결의대회, 26일 전해두 항의방문 무차별 폭행/93.10.27 /I- 145
- 국가안전기획부법 폐지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93.11.25 /I- 192
-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진압, 경찰청장 "인권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93.10.28 /I- 148
- 원진비대위, 종로서장 폭력혐의로 고발/93.10.30 /I- 152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수사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형평성에 크게 배치"94.4.6 /124
-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93.11.25 /I- 191
-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94.1.13 /I- 268
-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진치6주 부상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94.2.8 /II- 31
- 서준식 대표,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94.2.16 /II 38
-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94.2.26 /II- 60
- 경찰, 학원사찰·프락치 공작기도, 4일 한총련 밝혀/94.3.5 /II- 76
-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94.3.26 /II- 108
- 경찰 또 불법연행·감금, 역사노 사건 4명/94.3.29 /II- 111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촉구, 대한변협/94.4.6 /II- 124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희권씨/94.4.13 /II- 136
-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방해도/94.4.23 /II- 151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19 /II- 186
-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94.5.31 /II- 203
-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94.6.16 /II- 229
-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94.7.14 /48
- 백골단 집단구타 철거민연합 평화집회 이수라장/94.9.6 /134
-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썩, 한총련 조통위원장 연행/94.11.8 /225
-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김동한)/94.11.16 /239

<김기웅 순경사건>

- 성명서-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KNCC)/93.12.11 /I- 219
- MBC 'PD수첩',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94.1.11 /I- 260
- 김기웅 순경, 고소·고발장/94.1.11 /I- 262
- 김기웅 대법원에 탄원서/94.1.12 /I- 263
- '김기웅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이기택 민주당 대표등 /94.1.22 /I- 284
- 김기웅순경 다시 피고인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94.2.1 /I- 299
- 김기웅순경 무죄확정,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94.4.9 /II-131
- 김기웅순경 복직 결정,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94.4.15 /II- 139
- 인터뷰:김기웅순경/94.4.15 /II- 139

- 김기웅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94.5.13 /II- 181
- 살인혐의 김기웅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94.10.28 /207

<김춘도사망사건>

- 배병성씨 보석신청/93.8.17 /I- 46
- 배병성씨 부모등 수배/93.8.26 /I- 56
- 3차공판, 경찰 3명 증인신문/93.10.30 /I- 153
-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5차공판 부검의 증언/93.12.4 /I- 208
- 검찰, 헛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93.12.11 /I- 220
-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93.12.21 /I- 236
- 외대생 배병성씨 1심대로 무죄선고/94.10.15 /187

<경찰기타>

-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94.8.9 /92
- 프락치혐의자 사망 관련 4명 기소/94.9.7 /137
-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학생조사결과/94.8.10 /94

고문,가혹수사

-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93.8.24 /I- 53
-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93.10.5 /I- 111
- 사후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93.11.25 /I- 191
-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담당검사 안중택등 고소, 방양균씨/93.12.14 /I- 224
- 말지 1월호:고개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발췌)/93.12.23 /I- 241
- "사상문제로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 최형우:"물론이지"/93.12.23 /I- 241
-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부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단체/93.12.29 /I- 246
- 성명서: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93.12.29 /I- 246
-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94.1.11 /I- 261
-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94.1.11 /I- 261
- 교묘해진 고문현실-한국대표적 사례로 언급, AI 빼엘 씨네 사무총장/94.1.13 /I- 269
-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94.1.14 /I- 270
- 최내무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국회본회의 답변/94.2.22 /II- 50
-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등/94.2.24 /II- 56
- 역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중"94.3.31 /II- 114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94.4.12 /II- 133
- 수사중 가혹행위 주장, 평실련 조작의혹 제기/94.4.19 /II- 143
-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혐의로 기소/94.6.9 /II- 218
-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94.6.14 /II- 225
-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벽아씨 공판/94.6.15 /II- 227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94.7.8. / 39
- 고문피해자, 국가상대 손해소송/94.7.13 / 46
-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등 재정신청 및 항고/94.8.5 / 88
- 박석진씨 가족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해소송제기/94.8.6 / 91
- 신공안정국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여관등에서 고문/94.8.12 / 98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손해청구도 계획중/94.8.24 / 113
-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재우고 수사/94.8.26 / 116
- 함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94.9.6 242 / 133
-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핵심조항유보/94.10.29 / 209
- 함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94.11.19 / 244

<고문후유증>

- 5공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93.10.16 / I- 131
- 최영미씨 가족 탄원서/93.10.16 / I- 132
- 고문후유증 사례 1-최영미씨/94.1.15 / I- 273
- 고문후유증 사례 2-김복영씨/94.1.19 / I- 279
-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물렸던 김종경씨 손해소송, 수원지법/94.1.26 / I- 289
- 고문후유증 사례 3-김종경씨/94.1.26 / I- 290
-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94.1.28 / I- 293
-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94.4.12 / II- 133
-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94.6.4 / II- 214
- 문국진·김복영 생각하는 날 "고문피해자 보상" 서명/94.6.9 / II- 219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93.10.14 / I- 127
- 문국진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및 의사 소견서/93.10.14 / I- 128
-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93.11.18 / I- 181
-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93.11.19 / I- 183
-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국회 청원/94.1.5 / I- 251
- 단체탐방 8/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94.1.14 / I- 271
- 7개월만에 공판재개,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신체감정/94.3.24 / II- 105
-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퇴원/94.4.19 / II- 144
-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94.6.4 / II- 214
- 문국진·김복영 생각하는 날 "고문피해자 보상" 서명/94.6.9 / II- 219
-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 발간, 피해자가족모임등 계획/94.6.22 / II- 237
-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요구/94.6.24 / II- 241
-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요구, 문국진 모임 탄원/94.6.29 / II- 249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3차공판/94.7.15 / 51

- 문국진씨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94.7.28 / 72
-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해소송/94.8.26 / 116
- 창립 1주년 /94.10.13 / 184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손해소송 5차 재판 /94.11.4 / 221

<의문사>

-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94.3.29 / II- 100
-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94.3.26 / II- 108
- 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94.4.26 / II- 154
-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고발하기로, 광주항쟁 계승위, 학술대회·추모집회등도/94.4.27 / II- 155
- 유가협 국회의원사당 앞 시위,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94.10.22 / 197
- 유가협, 의문사 청원 앞서 민자, 민주당 방문 /94.11.4 / 220
- 안동교도소 최태호이경 사망사건-유족들 타살 의혹 제기/94.11.4 / 221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94.11.4 / 221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94.11.5 / 222
- 최태호이교 의문사 의혹 증폭, 대책위결성, 항의집회/94.11.17 / 241
- 최태호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요구 관철/94.11.18 / 242
- 최태호이교 재부검, 사망전 구타가능성 짚어/94.11.22 / 246
- 최이교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94.11.24 / 250

교육

- 민들레의 합창',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어린이의 꿈과 희망 담아/94.10.11 / 180
-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94.10.19 / 191
-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94.10.21 / 195
- 홍사단, 학생의 날 기념식/94.11.8 / 225
- 동일여고 졸업생 피켓시위/94.11.9 / 227
- 반성문 안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94.11.12 / 234

<두밀리분교>

-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교 폐쇄 잇달아 농촌황폐화 부추켜/94.3.3 / II- 70
- 정든 학교, 울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두밀리분교 폐교, 등교거부 자체학습/94.3.9 / II- 81
- 학생들 마을회관에서 공부/94.3.16 / II- 92
- 한달째 학부모교사 두밀국교 학생 교육/94.3.30 / II- 113
- 경찰, 두밀국교 학부모 조사/94.4.7 / II- 128
-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94.4.21 / II- 147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94.5.4 / II- 168
-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94.5.11 / II- 177
-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94.5.17 / II- 185

- 두밀분교 폐교반대 주민들, '두밀분교 후원회원 모집' /94.5.26 /II- 197
-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 부당한 압력, 밤중에 전화·이장에 사퇴압력 /94.5.27 /II- 198
- 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주민 교육장등 면담 한밤중 전화등 중지요구 /94.5.31 /II- 202
-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94.6.9 /II- 219
-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주장, 경기교육감 주밀리주민과 간담회 /94.6.16 /II- 229
- 시행령 개정없이 '벽지학교' 폐교,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94.6.29 /II- 249
- 16개 단체 두밀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 /94.7.7 /II- 262
- 두밀분교후원회 재판방청, 토론모임등 추진 /94.7.14 / 48
- 전국교대생 온나라 걷기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증점 /94.7.15 / 51
- 두밀분교 폐교철회 지지방문 /94.7.23 / 66
-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기자회견 /94.8.5 / 89
- 재판부 두밀리분교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94.9.28 / 157
- 두밀리 살리기 기금한마당 /94.10.19 / 192
-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글 /94.10.19 / 192
-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94.10.26 / 203
- 사건으로 되집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94.11.22 / 247

<전교조>

- 전교조등 전국에서 '어린이 큰잔치' 마당, 올바른 어린이 문화 정착위해 /94.5.3 /II- 165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 /94.5.4 /II- 168
-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 /94.5.14 /II- 183
- 전교조 창립5돌 행사,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 /94.5.26 /II- 196
-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 /94.5.31 /II- 203
- 황낙주 현 국회의장, 진해여상 9명 교사복직 및 배상금지급 외면 /94.7.9 / 41
- 어린이 여름학교, 전교조 초등지부 /94.7.16 / 54
- 서울시 교육청, 이수호씨등 8명 임용대상 제외 /94.8.13 / 100
- 전교조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94.11.24 / 251

국가보안법 일반

-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명동성당 /93.8.4 /I- 31
- 민가협·범추본 명동성당 농성 속보, 가두선전 및 장기수 한마당 가져 /93.8.5 /I- 33
- 한총련 구국대단식 돌입, 8월 4일부터 13일까지 /93.8.5 /I- 33
- 국보철폐 시민한마당 열려, 12일 6시 연대 노천극장 /93.8.12 /I- 42
-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 /93.8.13 /I- 44
- 국보철폐 한마당 장소 옮겨 진행 /93.8.13 /I- 44
-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 /93.8.13 /I- 44
-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 /93.8.14 /I- 45
- AI,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보법·노동쟁의법 개정, 양심수 석방 요구 /93.8.17 /I- 46

- 케네디 인권센터의 서한 /93.8.24 /I- 53
- 케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93.8.24 /I- 53
-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 /93.9.18 /I- 95
- 대구·경북 총학생회 연합의장 권혁명씨 불잡혀, '한총련 전화회담' 관련 /93.9.18 /I- 95
-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조용환 변호사 /93.10.30 /I- 152
-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 /93.11.25 /I- 191
-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찬양 /93.12.1 /I- 201
- 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 /94.1.18 /I- 274
-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6월에 4년 집유 /94.2.23 /II- 53
- 국제인권단체 "장의군·김성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 /94.2.24 /II- 58
- '국보법은 기본권 제한 범주 넘어', AI 한국지부 /94.3.5 /II- 76
- AI,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94.3.9 /II- 82
- 남북대화 진전위해 국보법 철폐 요구, 북한 외교부 /94.3.9 /II- 82
-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94.3.10 /II- 84
- 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94.3.10 /II- 84
- 국보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94.3.10 /II- 84
- 대법원 노중선씨에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유죄' /94.3.15 /II- 90
-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94.4.7 /II- 128
- 아시아워치, 국보법등 거론 /94.4.14 /II- 137
- 수사중 가혹행위 주장, 평실련 조작의혹 제기 /94.4.19 /II- 143
- 마산·창원에서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94.6.17 /II- 231
- 광주전남연합소속 오병윤씨등 3명 구속, 범민련 관련 /94.7.6 /II- 261
-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94.5.17 /II- 185
- 92년 전대협 조통위장 징역 2년 선고 /94.7.16 / 54
- 부경총련 조통위원장 국보법위반혐의 조사 /94.7.28 / 73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피소, 부경총련 손배청구도 계획중 /94.8.24 / 113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94.8.11 / 96
-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B규약위배 /94.8.11 / 97
- 전국연합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 /94.9.6 / 134
- 국제사면위 한국·일본지부 인권교육 마련 /94.9.7 / 135
- 범민족대회 관련 전국연합 최규엽씨 조사받고 풀려나 /94.9.13 / 146
-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94.9.15 / 149
-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국보법 위헌 성명서 /94.9.29 / 160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해 긴급구속 /94.10.7 / 174
-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련 10주년 기념식 /94.10.11 / 181
-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94.10.18 / 190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94.10.25 / 200
-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종식 촉구 /94.10.26 / 202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94.11.2 / 216

-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썩, 한총련 조총위원장 연행/94.11.8 / 225
-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94.11.24 / 281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등 요구/94.7.29 / 74
- 공안문제연구소, 4년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94.7.30 / 77
-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94.8.3 / 84
- 경상대교수에 소환장 발급/94.8.4 / 86
- 참고자료 : 『한국사회의 이해』 차례/94.8.4 / 87
-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기자회견/94.8.5 / 88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94.8.5 / 89
- 서부경남지역 21개 단체, 학문의 자유 보장 촉구/94.8.6 / 90
- 인터뷰 : 김의동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94.8.6 / 90
-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94.8.6 / 91
- 중앙일보 8월3일자 사설, '붉은 교수 사실인가'/94.8.6 / 91
-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94.8.6 / 91
-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94.8.9 / 93
-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94.8.10 / 94
-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94.8.10 / 94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등 견해/94.8.10 / 94
- 영·호남 지역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즉각 중지 요구/94.8.11 / 97
-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AI/94.8.12 / 98
-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94.8.13 / 100
-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94.8.17 / 103
- ‘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서명운동 본격화/94.8.17 / 103
- 경상대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94.8.18 / 103
-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 총장에 항의서한/94.8.19 / 107
- 민교협, “박홍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요구/94.8.20 / 108
- 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94.8.20 / 108
- 폐강항의 경상대 방문/94.8.23 / 110
-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94.8.25 / 115
- 경상대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교수 90인 성명/94.8.25 / 115
-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 시도/94.8.25 / 114
-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공대위/94.8.26 / 116
-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94.9.15 / 149
-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국보법 위헌 성명서/94.9.29 / 160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해 긴급구속/94.10.7 / 174
-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련 10주년 기념식/94.10.11 / 181
-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94.10.18 / 190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94.10.25 / 200
-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종식 촉구/94.10.26 / 202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94.11.2 / 216
-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썩, 한총련 조총위원장 연행/94.11.8 / 225
-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94.11.24 / 281

<구국전위 사건>

-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5개지역 20여명 일제히 연행/94.6.15 / II- 226
- 안재구씨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94.6.16 / II- 228
- 안재구씨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94.6.17 / II- 231
-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엠네스티/94.6.18 / II- 233
- 구국전위 관련 4명 추가구속/94.7.6 / II- 261
-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94.7.30 / 76
- 영등포교도소, 안재구씨 면회제한/94.8.6 / 91
- 안재구씨 첫 공판 열려/94.9.29 / 89
- 「구국전위」 재판 공정성 우려/94.9.15 / 144
- 안재구씨 반국가단체구성등 공소사실 부인/94.10.20 / 194
- 안재구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94.11.18 / 242
-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AI/94.11.25 / 252

<94년 신공안정국 사건>

- 전국연합 “신공안통치중단, 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94.6.30 / II- 251
-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94.7.14 / 48
-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94.7.16 / 54
- 한총련, 박홍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94.7.20 / 59
-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94.7.22 / 63
- 평불협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94.7.22 / 63
- 한교협 인권위, 전대협 동우회등 “사과해명 요구”/94.7.22 / 63
- ‘분향소’ 합수부 국보법 위반 피소/94.7.27 / 71
- ‘사진촬영 안했다’ 증언경관 진술반복, ‘전남대 분향소’ 수사관/94.7.27 / 711
- “학생들은 신공안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94.7.29 / 75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94.8.11 / 96
- 이창복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본격화/94.8.11 / 97
- 신공안정국 기획(1)/10일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94.8.11 / 96
- 신공안정국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여관등에서 고문/94.8.12 / 98
- 신공안정국의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94.8.12 / 99
-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처벌 요구, 변협/94.8.18 / 105
-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94.8.18 / 105
- 이창복, 황인성씨 검찰송치/94.8.19 / 107

- 이창복·황인성씨 석방촉구, AI 입장 발표/94.8.19 / 106
- 3·7월 시국구속자 현황부 1년 구속자보다 감절, 22일 민주당 집계통계/94.8.23 / 110
- 신공안정국 돌파논의, 민가협 수련회/94.8.25 / 114
-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재우고 수사/94.8.26 / 116
-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유초하교수3등 수배/94.8.27 / 118

<김삼석씨 남매사건>

- 김삼석씨와 여동생 불법연행 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아/93.9.9 / I- 81
-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8일 김삼석씨 남매 연행 소재파악도 안돼/93.9.10 / I- 83
- 성명서; 김삼석씨와 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93.9.10 / I- 84
- 안기부,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씨 남매 8일 연행, 잠안재우기 여전/93.9.11 / I- 85
- 김삼석씨 남매 사건 설명회, 연락모임 가지기로/93.9.17 / I- 94
- 안기부, 김삼석씨 부인의 남편 구원활동 위협/93.9.18 / I- 95
- 국제 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 사건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공문/93.9.18 / I- 96
-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씨 자해로 고발/93.9.23 / I- 101
- 안기부, 김삼석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93.9.25 / I- 105
- 엠네스티, 김삼석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93.9.25 / I- 105
- 안기부 발표중 김삼석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93.9.25 / I- 106
- 국제 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2차 긴급구명 활동 공문/93.9.25 / I- 106
- 검찰, 김삼석씨 송치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집권 금지/93.9.28 / I- 107
-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93.9.28 / I- 108
- 안기부, 김삼석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93.10.8 / I- 118
- 김삼석씨, 검찰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번, 검찰수사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93.10.9 / I-121
- 김삼석씨 성고문사건, 국내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AI 우려 표시/93.10.13 / I- 125
- 안기부원 고소(고발)장/93.10.21 / I- 138
-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대책위」 기자회견/93.10.29 / I- 150
- 「김삼석·김은주 대책위」와 「남누리영상」 제작부장의 증언내용 요약/93.10.29 / I- 151
- ‘간첩죄 기소’ 김삼석씨 유령단체 대표 조작 의혹/93.10.30 / I- 152
- 가혹행위·성추행 안기부원 수사촉구 서한보내, 윤미향씨/93.11.9 / I- 169
-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김삼석·김은주씨 첫 공판/93.12.18 / I- 233
- 김삼석씨 고문 고발인 조사, 서울지검/93.12.14 / I- 224
- 김삼석 남매 구원회 결성, 10일 일본 동경/93.12.15 / I- 227
- 김삼석·김은주씨 모두진술서/93.12.18 / I- 234
- 「말」 「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김은주 2차 공판/94.1.8 / I- 258
- 검찰 신문내용(요약 발췌)/94.1.8 / I- 259
-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94.1.22 / I- 284
-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94.1.22/I- 285
- 검찰, 증거없이 김삼석씨 15년·김은주씨 8년 구형, 피고인 “조작사건” 주장 판결 주목돼/94.2.19 / II- 47
- 김삼석·김은주 변론요지서(요약)/94.2.19 / II- 48

-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94.2.22 / II- 50
-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김삼석씨 7년 김은주씨 집행유예 선고/94.3.2 / II- 65
- <과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94.3.31 / II- 115
- 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 고발건/94.4.21 / II- 147
- 김삼석·김은주씨 항소심 1차공판/94.5.12 / II- 179
- 목적수행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94.5.27 / II- 198
- 서울고법, 김삼석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94.7.8. / 39
- 대법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94.10.27 / 205
-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94.11.1 / 213
-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 자료요약 /94.11.2 / 217
- 배인오씨 양심선언 현지조사 결과발표 /94.11.9 / 228
- 백홍용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언론 각성, 조작의혹 간첩사건 재조사 필요 /94.11.11 / 230
- 민가협·전국연합등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94.11.11 / 231
- 백홍용씨가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에게 쓴 자술서 /94.11.11 / 232
- 백홍용씨 양심선언 베를린 현지조사보고서(요약)와 독일 현지신문 보도/94.11.15 / 237
- 국제엠네스티-전 남한 안기부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석방 재요청 /94.11.18 / 243
- 백홍용, 김삼석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94.11.25 / 252
- 백홍용씨가 ‘김삼석,은주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94년 11월 18일자/94.11.25 / 253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사건>

- 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혐의 구속/94.8.2 / 81
-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94.8.4 / 86
- 서울시경,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94.8.5 / 91
-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씨 가족/94.8.6 / 91
- “김청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복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94.8.6 / 91
-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94.8.23 / 111
- 김청동 기소, 1명 석방/94.8.25 / 115
- 김청동사건, 피의자들 김청동결성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94.11.17 / 240

<노태훈씨 사건>

-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93.8.4 / I- 32
- 구속적부심, 8월 5일/93.8.5 / I- 33
- 노태훈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현 변호사 출두/93.8.6 / I- 35
- 구속적부심 기각/93.8.6 / I- 36
- 노태훈 석방요구 잇따라/93.8.11 / I- 40
-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씨 기소/93.8.14 / I- 45
- 일본변호사 41명등 석방촉구/93.8.14 / I- 45
- 노태훈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법조인·문화인등 187명/93.9.15 / I- 89
- 성명서;노태훈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계·법조계·학계 등/93.9.15 / I- 90

- 검찰 문민정부 첫 이직표현물, 노태훈씨에게 2년 구형/93.10.7 /I- 116
-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씨 석방요구 김영삼대통령에게 서한/93.10.9 /I- 120
- 노태훈씨 1심선고, 집유로 나와/93.10.21 /I- 137
-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93.12.7 /I- 211
-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93.12.7 /I- 212
-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94.2.8 /II- 31
- 사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94.3.17 /II- 94
- 노태훈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94.3.31 /II- 114

<민정련>

- 원주지부 회원 9명 연행, 영장제시 없어, 연행사유 및 장소 안알려/93.8.27 /I- 58
- 영장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등 13명 강제연행/93.8.28 /I- 60
- 무더기 구속·짜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93.8.31 /I- 62
- 강압수사 항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씨/93.9.2 /I- 65
- 용인지부장 경찰에 연행/93.9.16 /I- 91
- 용인지부장 양춘모씨 석방/93.9.17 /I- 94
- 경찰,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93.11.2 /I- 157
- 연행된 민정련 회원 전원 풀려나/93.11.3 /I- 160
- 광주지부 회원등 16명 연행/93.12.16 /I- 229
- 광주지부 회원등 13명 구속/93.12.18 /I- 233
-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94.1.7 /I- 256
-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94.1.11 /I- 261
-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료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94.1.14 /I- 270
-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94.1.15 /I- 272
- 경찰, 광주지역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94.2.17 /II- 42
- 민정련 회원 또 연행,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94.2.18 /II- 45
-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94.2.19 /II- 47
- 탈냉전 이후 환경, 인구가동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민정련 국제관계교실/94.7.5 /II- 261
- 민정련 마창지부 회원 박채홍씨등 2명 연행/94.7.2 /II- 258
- 민정련 간부 긴급구속/94.8.30 /121
- 민정련 회원, 기무부대에 연행/94.10.20 /193
-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94.11.3 /218

<사노맹>

- 사노맹 관련 문영찬씨 구형 7년/93.10.21 /I- 137
-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씨, 3년 선고/93.11.3 /I- 160
- 문영찬씨 2년 6개월 선고/93.11.4 /I- 162
-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93.11.30 /I- 197
- 사노맹 재건기도회의 정찬호씨등 3명 집유/94.3.25 /II- 107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흥권씨/94.4.13 /II- 136
-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94.6.11 /II- 223
-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눠,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94.6.14 /II- 224
- 민정련회원 7명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94.11.3 278 /48
-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94.7.14 205 /218

<사회주의과학원사건>

-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학단협 등 5개 단체/93.8.5 /I- 34
-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93.8.10 /I- 38
- 국제 앰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93.8.10 /I- 39
- 조국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93.8.12 /I- 42
- ‘사회주의 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씨 등 기소/93.8.13 /I- 43
- 조국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회견/93.8.27 /I- 59
-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씨 등 모두진술/93.9.11 /I- 85
- 자료: “사과원” 사건의 진실/93.9.11 /I- 86
-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사과원’사건공판/93.10.9 /I- 121
- ‘사과원’사건 결심공판, 6년에서 2년까지 구형/93.11.13 /I- 176
- 연구단체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93.11.27 /I- 195
- 사과원 관련 문용찬 집유/94.3.10 /II- 83
-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94.5.31 /II- 203
-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94.6.2 /II- 210

<샘>

- 국보법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단체 3명 구속 /94.9.8 /138
- 경찰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94.9.9 /141
- 샘활동 참가 고등학생 증정계 /94.9.9 /143
- 청소년단체 ‘샘’ 기자회견/94.9.29 /160
- 샘,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94.10.18 /190
-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공포분위기에 경찰조사 받았다” /94.10.19 /191
- ‘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 /94.11.1 /213
-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공판 /94.11.12 /233
- 경찰발표 배긴 동아일보, ‘샘’회원 강천규, 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 /94.11.12 /233
- ‘샘’사건 김용우씨 2차공판 /94.11.16 /238
- 샘공판, 검사증인 비공개 신청/94.12.3 /268

<자민통사건>

- 수배자 김석씨 연행/93.10.7 /I- 117
- 수배자 허탁·박영재씨 남영동으로/93.11.2 /I- 157

<출판인 구속>

- 일빛출판사 이성우사장 연행/94.3.19 /II- 98
- 힘출판사 압수수색, 대표연행/94.3.24 /II- 104
-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94.3.26 /II- 109
- 일빛·힘 대표 석방요구, 43명 출판인 성명/94.4.6 /II- 124
-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94.4.8 /II- 129
- 올 세번째 출판인 구속, '일터' 박치관씨/94.4.20 /II- 145
- 백산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전 책까지 문제삼아/94.6.11 /II- 223

<PC 통신>

- 안기부 게시물 검열후 신상자료 요구, 이용자들 '통신의 자유' 침해주장 확산/93.11.17 /I- 179
-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93.11.17 /I- 180
-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93.11.19 /I- 183
-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씨 끝내 연행,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93.12.8 /I- 213
- 김형열씨 구속, PC통신 관련 최초/93.12.9 /I- 215
- PC통신 최초로 기소, 국보법 위반/93.12.17 /I- 231
- AI, 김형열씨 양심수 선정/94.1.6 /I- 253
- 국가보안법 이중기준, 「내외통신」·「희망터」에 김주석 신년사 전제, 「희망터」만 구속/94.2.25 /II- 59
- 컴퓨터 통신에 있던 국보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94.3.11 /II- 86
-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통신 늘어나, 특정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94.3.11 /II- 87
-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94.3.12 /II- 88
-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94.4.7 /II- 127
-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울들어 3명제/94.3.15 /II- 91
- PC통신 김형열씨 공판연기/94.3.25 /II- 107
- 김형열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94.4.28 /II- 157
-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열씨, 징역1년 집유2년 선고/94.5.11 /II- 176
-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등 필요/94.6.17/II- 231

<혁신노>

- 경찰 또 불법연행·감금, 혁신노사건 4명/94.3.29 /II- 111
- "혁신노조직은 오래전에 해체되었다", 함평기씨 밝혀/94.3.30 /II- 112
- 혁신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중"/94.3.31 /II- 114

<황석영씨 방북사건>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 5일 결성/93.8.4 /I- 31
- 「황석영 대책위」 결성, 민예총 강당/93.8.6 /I- 35
-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 성명서/93.8.6 /I- 36
- 「사회주의 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씨 등 기소/93.8.13 /I- 43
- 황석영씨 3회 공판 /93.8.17 /I- 46

- 황석영씨 4회공판, 변호인 반대신문/93.8.31 /I- 63
- 방북(시도)인사공판, 황석영·박동수/93.9.21 /I- 97
- 박동수씨의 최후진술/93.9.21 /I- 98
- 박동수씨 실행선고/93.10.7 /I- 117
- 황석영 결심공판, 무기징역 구형/93.10.12 /I- 123
- 무기구형 항의성명서 발표/93.10.13 /I- 125
- 성명서;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보법 악용을 규탄한다/93.10.13 /I- 126
- AI, "황석영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93.10.16 /I- 131
- 검찰 황석영씨 공소장 변경/93.10.22 /I- 139
- 황석영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93.10.26 /I- 143
- 혁신노 사건 또다시 9명 기소/93.12.8 /I- 213
-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94.1.25 /I- 286
- 황석영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알기 위해 방북」/94.2.5 /II- 29
-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등 이적표현물 인정/94.2.22 /II- 50
- "널리 알려진 사실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94.5.25 /II- 194
-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등 문화예술계 성명/94.5.28 /II- 201
- 황석영씨 환송심 첫공판/94.8.19 /107
-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황석영씨 7년 선고 /94.9.28 /158
- 대법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확정, 황석영씨 국가기밀 유죄선포와 다른 판결/94.10.27 /205

<희망새>

-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방해, 부산 노래 「희망새」 등 9명 연행 확인/94.2.23 /II- 53
-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94.3.2 /II- 65
- 희망새 단원등 6명 영장없이 불법연행,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94.3.25 /II- 106
-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94.3.26 /II- 108
-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 석방 요구/94.3.30 /II- 112
- 가수들 「희망새」 석방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94.4.1. /II- 119
- 희망새 3명 또 연행/94.4.16 /II- 141
-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희망새 첫 공판/94.5.14 /II- 182
- 「희망새」 석방위한 서명·모금 사업진행/94.5.26 /II- 197
-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94.6.4 /II- 214
- "미완성대본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94.6.11 /II- 223
- 예술의 자유, 안정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유죄선고/94.6.16 /II- 228
-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행선고/94.6.30 /II- 251

국제

-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93.8.13 /I- 43
- 케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93.8.24 /I- 53

·케네디 인권센터의 서한/93.8.24 /I- 54
 ·유엔세계인권대회 평가회 열려/93.8.28 /I- 6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21일부터 사흘동안/93.9.22 /I- 99
 ·'외국인노동자 보호 필요', 한·일 연대회의 이틀째/93.9.23 /I- 10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서/93.9.24 /I- 103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93.9.24 /I- 103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HRDD, 캐나다) 소개/93.10.15 /I- 130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93.10.30 /I- 153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93.10.30 /I- 153
 ·캐나다 인권단체 ICHRDD대표, KONUCH 대표단 만날 예정/93.10.15 /I- 129
 ·정대협 대표 5일 평양으로, 전후처리 국제토론회 참석차/93.11.5 /I- 165
 ·미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93.11.12 /I- 174
 ·일본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 명단/93.11.12 /I- 175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93.12.14 /I- 224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93.12.22 /I- 238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93.12.22 /I- 239
 ·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 열려/94.1.20 /I- 281
 ·'제5회 민중의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94.1.27 /I- 292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레세라노/94.2.3 /I- 310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추진중, 일본 오사카 인권단체들/94.2.8 /II- 32
 ·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팔/94.2.8 /II- 32
 ·유엔 인권상 9명 수상/94.2.8 /II- 32
 ·인터뷰-민중의교훈련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94.2.16 /II- 40
 ·필리핀 인권단체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선언문 작성, 의회체택을 요구중/94.2.17 /II- 43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94.2.17 /II- 43
 ·민중의교훈련 프로그램 참석 이성훈씨 귀국/94.2.17 /II- 43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발언문,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발언문-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II- 58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샵, 방콕/94.3.3 /II- 71
 ·인터뷰-국제인권봉사회 부소장 마크 톰슨/94.3.8 /II- 79
 ·'정치범 석방' 단식농성, 재일단체, 오사카/94.3.15 /II- 91
 ·'검열반대국제센터', 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94.3.17 /II- 95
 ·세계인권단체 총람 발간, 캐나다 Human Rights Internet/94.3.17 /II- 95
 ·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94.3.24 /II- 105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94.3.24 /II- 105
 ·'재일한국정치범 석방·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단식농성/94.3.24 /II- 104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구금자 석방촉구/94.4.8 /II- 130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94.4.8 /II- 130
 ·아시아워치, 국보법등 거론/94.4.14 /II- 137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 연계 선거운동/94.4.14 /II- 138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및 선거감시단 활동/94.4.14 /II- 138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94.4.14 /II- 138
 ·콜롬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94.4.21 /II- 138
 ·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94.4.20 /II- 146
 ·아시아 선교대회, 환경·원주민 문제등 논의/94.4.27 /II- 156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국제정보브리핑' 모임/94.5.4 /II- 169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94.5.6 /II- 171
 ·'남아공 선거는 인류양심의 승리'/94.5.13 /II- 181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94.5.13 /II- 181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국제심포지움 개최, 망월동 기념 돌탑쌓기도/94.5.10 /II- 175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물래' 제출, '반박보고서 작성방해' 의혹/94.5.20 /II- 188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94.5.20 /II- 189
 ·미국 인권단체 반아파트르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 활동 본격화/94.5.20 /II- 189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94.5.25 /II- 194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94.5.27 /II- 199
 ·미국 사형선고 인종차별 논란, 마약관련 기소자 75%가 백인, 36명 사형지중 혹은 28명/94.5.27 /II- 199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중 사망 16명/94.5.27 /II- 199
 ·독일,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94.5.27 /II- 199
 ·미국 사형선고 인종차별 논란, 마약관련 기소자의 75% 백인, 36명 사형지중 혹은 28명/94.5.27 /II- 199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94.5.28 /II- 201
 ·아시아 핫-라인 긴급호소, 스리랑카 4년만에 주점으로 발견된 31명의 학생/94.6.3 /II- 213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94.6.14 /II- 225
 ·재일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94.6.21 /II- 236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중심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94.6.24 /II- 242
 ·조선민족박해 규탄, 작가회의·민예총/94.6.29 /II- 249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94.6.29 /II- 248
 ·탈냉전 이후 환경, 인구가동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민정련 국제관계교실/94.7.5 /II- 261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행사위/94.5.12 /II- 178
 ·창간 1주년 특집 4 - 국제인권, 자결권 -프랑스 카나키의 자결권 침해 /94.9.10 / 144
 ·방글라데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94.9.30 / 163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4.10.6 / 173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94.10.12 / 182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94.10.26 / 203, 204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94.10.27 / 206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등 핵심조항유보/94.10.29 / 209
 ·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중 /94.11.3 / 219
 ·인도어린 무기한 파업돌입, 외국어선 조업금지 요구 /94.11.10 / 229
 ·95년 '민중의교훈련프로그램', 타이 방콕/94.11.23 / 249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타이 방산/94.11.23 / 249

<국제사면위원회>

- 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93.8.5 /I- 33
-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93.8.10 /I- 38
- AI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93.8.10 /I- 39
- AI,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보법·노동쟁의법 개정, 양심수 석방 요구/93.8.17 /I- 46
- AI뉴스,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93.8.17 /I- 47
- AI 제21차 국제대의원총회 열려, 보스턴 8월 6-14일/93.8.19 /I- 50
-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93.9.18 /I- 95
- AI의 김삼석씨 남매 사건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공문/93.9.18 /I- 96
- 앰네스티, 김삼석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93.9.25 /I- 105
- AI의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2차 긴급구명 활동 공문/93.9.25 /I- 106
- 김삼석씨 성고문사건, 국내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AI 우려 표시/93.10.13 /I- 125
- AI, 수십명의 장기수 재심 촉구/93.10.13 /I- 125
- 앰네스티, 한국: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93.10.13 /I- 126
- AI, "황석영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93.10.16 /I- 131
- AI 아시아 조사관 방한, 정기방문차 17일간 일정/93.11.2 /I- 157
-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구속자 가족 등 만나/93.11.13 /I- 176
- AI 소개, 전세계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긴급구명활동이란?/93.11.13 /I- 177
- 새정부 출범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AI 국내 첫 기자회견/93.11.17 /I- 179
-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93.12.4 /I- 208
-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93.12.10 /I- 218
- AI 사형집행 중지·사형제도 폐지 요구/93.12.10 /I- 218
- AI, 김형렬씨 양심수 선정/94.1.6 /I- 253
- AI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94.1.7 /I- 256
-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AI 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93.11.16 /I- 178
- 교묘해진 고문현실-한국대표적 사례로 언급, AI 피엘 싸네 사무총장/94.1.13 /I- 269
- 정치적 살인·실종반대 캠페인 AI한국지부/94.1.20 /I- 281
-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조전/94.1.22 /I- 285
-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94.1.27 /I- 291
- 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94.2.1 /I- 299
- 40년 감옥살이 안학섭씨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선정 전세계에 호소/94.2.2 /I- 302
-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94.2.3 /I- 311
- 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94.2.8 /II- 32
- AI 실종, 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롬비아 첫 대상국가로 선정/94.3.3 /II- 70
-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94.3.3 /II- 70
-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실종'반대 캠페인, AI 세계여성의 날 맞아/94.3.4 /II- 72
- '국보법은 기본권 제한 범주 넘어', AI 한국지부/94.3.5 /II- 76
-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94.3.9 /II- 81

-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AI 보고서 목차)/94.3.9 /II- 82
- AI,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94.3.9 /II- 82
- 정치적 살해 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94.3.17 /II- 95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94.3.22 /II- 101
-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 석방 요구/94.3.30 /II- 112
-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94.4.8 /II- 129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94.4.19 /II- 144
- 7월말 아·태 AI회의 열려, 한국지부 양심수인의 밤 등 준비/94.4.20 /II- 145
- AI,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엽서 발간/94.4.21 /II- 148
- AI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94.4.21 /II- 148
-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94.5.13 /II- 181
-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AI/94.6.18 /II- 233
- 전국교육대회, AI 한국지부/94.6.22 /II- 238
- 아·태지역 AI 병행행사 확정/94.7.2 /II- 259
-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94.7.7 /II- 262
-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요구,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94.7.7 /II- 262
- AI 151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남·북한 부분 언급/94.7.7 /II- 264
- 94년 AI 연례보고서(1)/94.7.8. /40
- 94년 AI 연례보고서(2)/94.7.9 /42
- 94년 AI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94.7.12 /44
-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94.7.22 /63
- AI 아태지역대회 열려/94.7.26 /68
-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의 대체요구/94.7.28 /72
- 문국진씨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AI 연례보고서, 고문으로 인한 질병인정/94.7.28 /73
- 94년 AI 아태지역대회 병행행사 일정/94.7.29 /75
- 서준식대표 강연, AI '양심수의 밤'에서, 사회권 영역등 시야확대 절실/94.7.30 /76
- AI,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표명/94.8.2 /81
- AI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양심수의 밤" 연설문/94.8.3 /84
- AI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94.8.3 /85
- AI 국제사무국, "언론, 남한 인권무시" 유감표명/94.8.3 /84
- 남한-국보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AI/94.8.12 /98
- 이창복·황인성씨의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 발표/94.8.19 /106
- AI 한국지부 「한·일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 /94.9.13 /154
- 단체탐방 31 -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94.9.7 /154
- 앰네스티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94.9.30 /161
- 앰네스티 10/9-25일 한국방문 /94.9.30 /161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94.10.8 /177
- AI,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94.10.11 /181
-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등 방문실태 조사 /94.10.22 /197

- AI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표명 /94.11.3 / 219
- AI,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94.11.10 / 229
- AI-전 남한 안기부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석방 재요청 /94.11.18 / 243
-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94.11.25 / 252
- 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94.11.29 / 258
-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94.11.30 / 260
- 안재구씨 사건 조작의혹, AI 즉각 석방요구/94.12.2 / 266

<사회개발정상회의>

-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13일/94.1.27 / I- 292
- 사회적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94.2.8 / II- 32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94.4.29 / II- 160
-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 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참가/94.5.13 / II- 181
-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모임/94.7.6 / II- 262
-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준비 첫 모임/94.7.9. / 41
- 사회발전 세계정상회담 대비,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94.7.26 / 68
- 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94.8.23 / 110
-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준비위 개막/94.8.26 / 117
-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개최 /94.9.14 / 147
-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94.9.16 / 151
- 가난 고용 실업등 주제 검토,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운영위/94.9.27 / 156
- 한국민간단체, 동티모르 인권문제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표명/94.11.15 / 236
- ‘인권위원회’ 설립·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참여연대등 APEC에 요구/94.11.16 / 238
- 국제인권소식-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성명서(요약) /94.11.16 / 239

<동티모르>

-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방한,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93.11.24 / I- 189
-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93.11.24 / I- 190
-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알카티리씨 강연회/93.11.30 / I- 197
-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요약)/93.11.30 / I- 198
- 외무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면담 거절/93.11.26 / I- 193
-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93.12.1 / I- 201
- 인터뷰-민중의교훈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94.2.16 / II- 40
-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 압력, 필리핀 외국인 참가거부/94.5.24 / II- 192
-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94.5.26 / II- 197
- 조용환 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위해 출국/94.5.28 / II- 200
-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개최/94.6.3 / II- 212
- 동티모르에서 ‘실종’ 및 살해 계속, 호주 「티모르의 빛」 긴급호소문/94.8.4 / 87
- 앤네스티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94.9.30 / 161

- 한국민간단체, 동티모르 인권문제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표명/94.11.15 / 236
-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추모집회 /94.11.3 / 219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94.11.30 / 259
- 동티모르 독립지지하는 행동에 나서게 인권단체 압력 필요/94.12.2 / 266
-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94.12.3 / 268
- 『동티모르 관련자료 모음』 소개/94.12.3 / 269
-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연대 호소, 로케 로드리게스씨 강연/94.12.3 / 269

<아태지역인권워크샵>

- 아·태 지역 인권워크숍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94.2.24 / II- 57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7월 18-20일/94.7.8. / 40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일정/94.7.13 / 47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1-지역인권기구란?/94.7.14 / 47
- 아시아지역 인권기구, 국민인권기구등 논의, 제3차 아태지역인권워크숍/94.7.13 / 49, 50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2-국민인권기구란?/94.7.15 / 52, 53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개막/94.7.19 / 56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3-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94.7.19 / 57, 58
-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지상중계/94.7.19 / 58
- 아태지역 인권포럼 정례화 합의, 20일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폐막/94.7.20 / 60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4-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94.7.20 / 61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5-평가와 반성/94.7.22 / 64

<국제-여성일반>

-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95년 9월 4-15일 북경/94.1.27 / I- 292
- 「사회변화를 위한 여성교육」 국제회의, 캐나다 오타와 대학/94.2.17 / II- 43
-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숍, 방콕/94.3.3 / II- 71
- 여성인신매매, 전쟁피해문제 회의, 동경/94.3.5 / II- 76
-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 진출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7차 여성노동자대회/94.3.8 / II- 78
-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94.4.7 / II- 128
-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94.5.6 / II- 171
- 아시아여성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94.11.10 / 229
- 여성법정, ARRC 워크숍에 인권활동가 참가/94.11.30 / 260

<오월광장어머니회> ----->불처벌

<북경여성대회> ----->여성

<유엔관련기구>

- 케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93.8.24 / I- 53
- 케네디 인권센터의 서한/93.8.24 / I- 53

-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93.8.27 /I- 58
-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93.8.27 /I- 59
-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유엔 구금실무위 규정/93.8.28 /I- 60
- 장의균, 황대권·김성만씨 사건개요/93.8.28 /I- 61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 결정문/93.8.31 /I- 63
-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조용환 변호사/93.10.30 /I- 152
-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등/93.11.20 /I- 185
- 전노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NO.1629) 내용요약/93.11.20 /I- 186
-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93.11.20 /I- 186
-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93.12.11 /I- 221
- ILO 『93 노동통계연감』, 한국 노동시간 '국제적' 수준/94.1.21 /I- 282
- ILO 『93 노동통계연감』중 중대재해율, 주당 노동시간/94.1.21 /I- 283
- KONUCH 대표단,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 참가, 2-3일 방콕/94.2.2 /I- 302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예정/94.4.12 /II- 133
-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94.5.20 /II- 188
- ILO 총회에 전노대 파견, 2명 고문단 자격/94.6.2 /II- 210
- 문국진씨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94.7.28 /72
-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94.8.24 /113

<유엔인권위원회>

-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93.8.27 /I- 58
-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93.8.27 /I- 59
-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1월 31일-3월 11일, 제네바/94.2.3 /I- 309
-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93.10.21 /I- 137
-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93.10.21 /I- 138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안건/94.2.8 /II- 32
- 유엔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94.2.15 /II- 35
- 아·태 지역 인권워크숍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94.2.24 /II- 57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1)-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 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 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연사로 치장/민간단체 138개 700여명으로 사상 최대, 국내 정대협·KONUCH 대표단 참석중/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발언문,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발언문,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94.2.24 /II- 58
- 정신대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94.3.8 /II- 78
-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50차 인권위원회 폐회/94.3.10 /II- 83
-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94.3.10 /II- 84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보법 조사단 파견키로/국보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94.3.10 /II- 84

- 인터뷰-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50차 인권위원회 평가/94.3.31 /II- 115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94.5.4 /II- 168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94.5.4 /II- 169
- 인권 B규약 가입 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 국내법규 개혁계기/94.5.28 /II- 200
- 인권이사회 3차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94.5.28 /II- 200
-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94.5.28 /II- 200
-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94.6.29 /II- 248
-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 /94.10.14 /186

<인권고등판무관>

-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9일 결의안 초안 작성/93.11.18 /I- 181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93.11.18 /I- 182
-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결의문/94.1.7 /I- 257
-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94.3.10 /II- 83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소 선출/94.3.10 /II- 85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3-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94.7.19 /56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특집 4-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94.7.20 /60

<해외단체활동>

- 해외한청련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련 10주년 기념식 /94.10.11 /181
-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등 /94.10.14 /186

노동

- AI,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보법·노동쟁의법 개정, 양심수 석방 요구/93.8.17 /I- 46
-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진압, 경찰청장 "인권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93.10.28 /I- 148
-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노·사·정 공동합의문」에 반대/93.11.11 /I- 172
-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등/93.11.20 /I- 185
- 전노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NO.1629) 내용요약/93.11.20 /I- 186
-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93.11.20 /I- 186
-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93.11.23 /I- 187
- '소사장제' 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94.1.13 /I- 268
- ILO 『93 노동통계연감』, 한국 노동시간 '국제적' 수준/94.1.21 /I- 282
-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 "안전월급제" 등 주장/94.1.25 /I- 286
- 택시노련 안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납금 폐지도/94.1.28 /I- 293
-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94.3.11 /II- 86
- 104회 노동절 기념대회 전국에서 열려, 수도권은 5월1일/94.4.30 /II- 161
- '94년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위해 노력', 104회 노동절 행사 열려/94.5.3 /II- 165
- 인권이사회 3차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94.5.28 /II- 200
- 인권 B규약 가입 이후 손종규씨에 첫 '통보' 허용, 국내법규 개혁계기/94.5.28 /II- 200

- 민변 신입회장에 고영구 변호사/94.6.1 /II- 207
- 전노대 결의대회 제3차 개입금지·구속수배에 공동대응키로/94.6.2 /II- 210
-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등 요구/94.6.11 /II- 223
-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출판기념회/94.6.21 /II- 236
-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94.7.1 /II- 255
- 3% 가이드라인 철폐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94.7.2 /II- 259
- 전노대 제3차 개입금지, 직권중재등 철폐결의/94.7.5 /II- 260
- '수배해제등 강압조치 철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94.7.15 / 51
- 현대중공업 긴급조정권 발동움직임 철폐촉구/94.7.22 / 65
-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94.7.28 / 72
- "UR비준보다 가물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노대/94.7.29 / 74
- 서울대병원 노조원복직등 잠정합의/94.7.29 / 74
- 신공안정국 기획(2)/ 광주동부경찰서 '수배자 행선지 대라', 여관등에서 고문/94.8.12 / 98
- 노동법 교실 개최/94.8.20 / 108
- 포항제철 노조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 /94.9.1 / 128
- 현중 고소·고발 취하 약속 안 지켜, 전노대 /94.9.8 / 139
-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94.9.13 / 146
- 남재회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 /94.9.15 / 150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 /94.10.7 / 175
-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출범 /94.11.5 / 222
-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94.11.9 / 227
- 민주노총건설 의지를 결집할 전국노동자대회 /94.11.12 / 233
- 손봉현 현대정공위원장, 제3차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 /94.11.12 / 234
- 민주노총준비위 발족, 13일 노동자대회에서/94.11.15 / 236
-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94.11.30 / 260

<산업재해>

- 불법채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93.11.27 /I- 195
- 서울고법 제9특별부 판결문/93.11.27 /I- 196
- 외국인 노동자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94.2.15 /II- 36
-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전노협」·「인의협」등 치료제한 사례접수/94.2.15 /II- 36
- '산재없는 세상만들기' 그림전, 4월27일-5월3일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 위해/94.3.25 /II- 107
- 산보센터 건립위한 그림전/94.4.27 /II- 156
-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94.7.23 / 66
- 부산·경남지역 산재노동자 급증, "올 9천여명" /94.7.27 / 70
-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 부터 시행, 노동부/94.7.28 / 72
-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94.8.13 / 100
-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94.9.2 / 130
-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94.10.5 / 171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 /94.11.8 / 224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93.9.22 /I- 99
-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93.9.22 /I- 100
- '외국인노동자 보호 필요', 한·일 연대회의 이틀째/93.9.23 /I- 101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93.9.23 /I- 102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서/93.9.24 /I- 103
-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93.9.24 /I- 103
- 불법채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93.11.27 /I- 195
- 서울고법 제9특별부 판결문/93.11.27 /I- 196
- "외국인 노동자도 기제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94.1.13 /I- 268
-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94.1.13 /I- 269
-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94.1.27 /I- 291
- 외국인 노동자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94.2.15 /II- 36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개원/94.4.13 /II- 136
- 외국인노동자 수첩 발간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94.6.14 /II- 225
-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 YMCA/94.8.26 / 116
- YMCA,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열어/94.8.30 / 120
- 창간1주년특집5-외국인노동자/ 인터뷰-김재오소장/94.9.13 / 146
-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4.10.6 / 173
- 14일 고난 운영위,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 /94.10.15 / 188
- '현대판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94.10.26 / 202
- 지상중계-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94.10.28 / 208
-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94.10.28 / 207
-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홍보계대로 안돼 /94.11.16 / 238
-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94.11.26 / 254

<원진레이온>

- 정부, "직업병 외면, 땅투기 부추켜",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93.8.21 /I- 52
- 원진, 대책없는 파산 결정 거부 농성 돌입, 명동성당, 24일부터/93.8.24 /I- 53
- 원진실상 바로알리기 행진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93.8.27 /I- 58
- '원진' 35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 24일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93.8.25 /I- 55
- 원진레이온 결의대회 오늘 3시 열려/93.8.28 /I- 61
- '원진특별법' 제정 강력요구, 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93.9.14 /I- 87
-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93.9.15 /I- 89
-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93.9.16 /I- 91
- 명동성당 농성, 원진레이온 속보/93.9.17 /I- 93
- '원진직업병' 화형식, 원진특별법 제정 요구대회/93.9.21 /I- 97

- '원진' 정치적 해결 촉구, 청와대 뒤 인왕산에서/93.9.23 /I- 101
- 정부의 원진문제 해결자세 규탄, 25일 명동성당 집회/93.9.28 /I- 107
- 성명서;김영삼 정부는 원진직업병 문제 즉각 해결하라/93.9.28 /I- 108
- 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93.10.6 /I- 115
-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대표 증언,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93.10.22 /I- 139
-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93.10.22 /I- 139
-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결의대회/93.10.26 /I- 144
- 경찰, 23일 원진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무차별 폭행/93.10.27 /I- 145
- 원진비대위, 종로서장 폭력혐의로 고발/93.10.30 /I- 152
-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93.11.4 /I- 162
-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양길승)/93.11.4 /I- 163
- "미완의 원진합의서", 9일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합의/93.11.10 /I- 170
- 원진합의서(전문)/93.11.10 /I- 171
-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의를에서/93.11.25 /I- 191
- 원진레이온 파산선고, 30일 의정부지원/93.12.2 /I- 204
- 원진폐업투쟁 보고대회, 11일 구리민방위교육장/93.12.11 /I- 219
-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93.12.14 /I- 224
- '원진 직업병' 올해 들어서도 8명, 4개 환자단체 29일 통합/94.1.29 /I- 295
-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 10명 또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94.3.5 /II- 75
-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울들어서만 32명/94.3.23 /II- 102
- 원진 작년 합의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요구/94.4.23 /II- 151
- 원진직업병 대책 촉구, 원진비대위 결의대회/94.4.26 /II- 153
- 60여년간 사용한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직업병도 수출/94.5.4 /II- 169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94.5.10 /II- 175
-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 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94.5.12 /II- 178
- 원진 환자 또 10명 발생, 울들어 42명 발생 지금까지 모두 359명 사망 16명/94.5.19 /II- 186
- 원진비대위 '돈 몇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94.5.20 /II- 188
- 원진기계 약64억원에 매도, 원진비대위 수입철회 촉구/94.5.24 /II- 193
- 전해투·원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원진노동자 재취업 요구/94.5.24 /II- 193
-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94.5.28 /II- 201
- 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 단체 공동논의/94.6.9 /II- 219
- '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 구성/94.6.11 /II- 222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기자회견/94.6.22 /II- 237
- 원진노동자의 삶 담은 원진이력서 2판발간 예정/94.6.23 /II- 240
-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원진대책위 집회/94.7.12 /43
- 단체탐방 28 /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대위/94.8.13 /101
-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 대회/94.9.2 /133
-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중/94.9.6 /130
- 원진비대위 대통령에 원진문제 해결 촉구 서한 /94.9.15 /150

- 원진문제 노동부 왜곡 /94.9.7 /153
- 원진폐업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94.10.5 /170
- 문진박대 당하는 원진노동자, 재취업알선장도 소용없어 /94.10.5 /170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 /94.10.5 /171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94.10.26 /203
- 원진직업병환자 또 사망,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질실/94.11.26 /285

<전해투>

-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민주당사에서/93.9.1 /I- 64
-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 11일, 전해투 대회/93.9.14 /I- 87
- 전해투 투쟁기금 마련 시민한마당, 26일 서울대에서/93.9.16 /I- 91
- 전해투 청원서/93.9.16 /I- 92
-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되자 자살/93.9.17 /I- 93
- 배상봉씨(배일도씨 아버지)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93.9.17 /I- 94
- 전해투 121일째 농성중/93.9.28 /I- 107
- 단식중 노동자 2명 병원 후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민주당사 단식 26일째/93.10.6 /I- 114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또 탈진/93.10.7 /I- 117
- 전해투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93.10.9 /I- 120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5차 결의대회/93.10.12 /I- 123
- 문익환목사 등, 민주당·노동부 등에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93.10.13 /I- 125
-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15·18일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93.10.14 /I- 127
-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93.10.19 /I- 133
-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93.10.19 /I- 134
-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93.10.27 /I- 145
- 성명서;정부의 10·25 수배해제 조치는 과거의 악순환 답습/93.10.27 /I- 145
- 경찰, 23일 원진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무차별 폭행/93.10.27 /I- 145
- 26일 전해투 연행자 및 상황일지/93.10.27 /I- 146
-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전해투 지원대책위/93.10.29 /I- 151
- "복직되면 제대조치 하겠다",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에 대한 입장/93.11.12 /I- 174
-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93.11.19 /I- 183
-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93.11.25 /I- 191
-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림자동차/93.11.27 /I- 195
- 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94.1.21 /I- 283
- "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94.1.29 /I- 295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94.3.10 /II- 83
-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 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94.3.11 /II- 87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이 노사관계 안정의 지름길, 전해투 시위/94.3.16 /II- 87
- 해고자, 출근투쟁·텐트농성 확산/94.3.19 /II- 98
- 단체탐방 14-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94.3.19 /II- 99

-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해투/94.4.6 /II- 124
- 꺼지지 않은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1년/94.4.8 /II- 129
- 인터뷰 : 전해투 대의협력부장 안경호(29, 한국공항 해고노동자)/94.4.8 /II- 130
-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94.4.9 /II- 131
- 한진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시위/94.4.12 /II- 134
- 해고자 텐트농성 확산중, 현재 20여곳/94.4.16 /II- 142
- ‘해고자 원직복직’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해투 위원장단 10명/94.4.19 /II- 144
-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체/94.4.23 /II- 152
-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94.4.26 /II- 153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장 50m높이 굴뚝 점거 ‘부당해고 철회’/94.5.6 /II- 170
-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노동절 104주년 맞아, 22일째 단식중/94.5.7 /II- 172
- 전해투 단식농성 25일째 건강상태 극도악화, ‘양심세력의 지지와 격려’ 호소/94.5.10 /II- 175
- 복직 비상결의대회, ‘자기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94.5.12 /II- 179
- 전해투 “노총해체” 주장/94.5.17 /II- 184
- 노·경총 임금합의 철회요구, 전해투 ‘노총폭력 사과’/94.5.20 /II- 188
-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전해투 병무청도 방문/94.5.21 /II- 190
-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 보장’/94.5.24 /II- 193
- 전해투·원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원진노동자 재취업 요구/94.5.24 /II- 193
-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94.5.28 /II- 201
- 노동부 ‘해고자 복직위해 노력’ 발표, 전해투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94.5.31 /II- 203
- 민교협등 22개 단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탄원서 제출/94.5.31 /II- 203
- 각계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청원/94.6.8 /II- 216
- 전해투, 해고자 복직노력 촉구/94.6.18 /II- 233
- 한진그룹해고노동자 면담요구, 연행돼 즉심판결/94.6.22 /II- 237
- 불벌터위에도 계속되는 전해투 텐트농성/94.7.28 / 73
- 전해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94.7.26 / 69
- 전해투 하계수련회/94.8.17 / 103
- 한가위맞아 찾아간 전해투 농성장 /94.9.7 / 153
-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자 가족 연행 /94.11.25 / 252
-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94.11.23 / 248

<지하철,철도파업>

- 철도·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94.6.23 /II- 239
-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94.6.24 /II- 241
- 전노대 긴급성명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94.6.24 /II- 242
-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 시작”/94.6.24 /II- 242
- 전노대 연대파업돌입 통고, 경찰의 노동자연행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고발/94.6.25 /II- 244
- 중앙노동위·서울지하철에 직권중재 통고, 지하철노조 거부/94.6.25 /II- 245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런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94.6.28 /II- 246

-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94.6.29 /II- 248
-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증징계 반대”/94.7.6 /II- 263
- 구속 철도노동자 석방요구, 8일째 금식기도회/94.7.9. / 41
- “노조원 대량징계 철회하라”, 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94.7.13 / 47
- 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시민·여성단체 토론회/94.7.19 / 56
-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 징계철회 안될 경우 재파업/94.7.20 / 59
-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94.7.27 / 70
- “협상 불응할 경우 15일 이전 재파업”, 서울지하철 노조/94.7.27 / 71
- 철도청장 철도공안권 폭력 책임지고 사퇴촉구, 철도·지하철 3종단 대책회의/94.7.29 / 74
- 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94.8.20 / 108
-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등 강력 항의/94.9.3 / 131
-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재차 항의 /94.9.6 / 134
-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94.9.7 / 137
- 지하철 13일부터 시한부 파업 밝혀 /94.9.9 / 141
- 철도노동자를 위한 하루찾집, 불교인권위 /94.10.15 / 187

<한국자보>

-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 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94.3.11 /II- 87
- 돈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등, 진상규명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94.5.4 /II- 168
- ‘김준기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94.5.17 /II- 184
- 단체탐방 20·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94.5.19 /II- 187
-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94.5.28 /II- 201
-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사대화제의/94.5.31 /II- 202
- 자보노조 간부 5명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 노총도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규탄/94.6.8 /II- 217
- “자보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자보노조 위원장/94.6.10 /II- 221
- 중노위, 자보간부 29명 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94.7.29 / 75

노인, 아동

- 「한국노인의 전화」 창립, 노인관련 종합정보 상담·제공/94.3.2 /II- 65
-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 한·일 합동심포지움/94.3.31 /II- 11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94.5.4 /II- 168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94.5.4 /II- 169
-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94.10.11 / 181

농민

-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UR 비준강행 철회, 재협상 촉구/94.7.28 / 73
- UR비준 계획 철회 촉구, 전농/94.7.29 / 74
- “UR비준보다 가뭄극복대책에 신경쓰라”, 전노대/94.7.29 / 74

단체탐방

- 단체탐방 1/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93.10.15 /I- 130
- 단체탐방 2/불교인권위원회/93.11.3 /I- 161
- 단체탐방 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3.11.11 /I- 173
- 단체탐방 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93.11.18 /I- 182
- 단체탐방 5/한국여성의 전화/93.12.2 /I- 205
- 단체탐방 6/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93.12.9 /I- 216
- 단체탐방 7/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93.12.17 /I- 232
- 단체탐방 8/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94.1.14 /I- 271
- 단체탐방 9/노동과 건강연구회/94.1.29 /I- 296
- 단체탐방 10/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94.2.5 /II- 30
- 단체탐방 11/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94.2.26 /II- 61
- 단체탐방 12/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94.3.5 /II- 77
- 단체탐방 13/천주교 인권위원회/94.3.12 /II- 89
- 단체탐방 14/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94.3.19 /II- 99
- 단체탐방 1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94.4.2 /II- 123
- 단체탐방 16/회년선교회/94.4.9 /II- 132
- 단체탐방 17/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94.4.15 /II- 140
- 단체탐방 18/민주주의법학연구회/94.4.22 /II- 150
- 단체탐방 19/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94.5.7 /II- 173
- 단체탐방 20/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94.5.19 /II- 187
- 단체탐방 21/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94.5.21 /II- 191
- 단체탐방 22/한국여성민우회/94.6.4 /II- 215
- 단체탐방 23/노동인권회관/94.6.18 /II- 233
- 단체탐방 24/전국삼청교육대동우회(구 전국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94.7.2 /II- 259
- 단체탐방 25/한국사회정책학회/94.7.16 / 58
- 단체탐방 26/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94.7.23 / 67
- 단체탐방 27/대한성공회 '나눔의 집'/94.7.30 / 77
- 단체탐방 28/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94.8.13 / 101
- 단체탐방 29/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94.8.20 / 109
- 단체탐방 30/외국인 노동자 피난처/94.8.27 / 119
- 단체탐방 31/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94.9.3 / 132
- 단체탐방 32/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94.10.8 / 179
- 단체탐방 33/서울지역공부방연합 /94.11.5 / 223
- 단체탐방 3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94.11.12 / 235
- 단체탐방 35/참사랑 쉼터 /94.11.19 / 245
- 단체탐방 37/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94.12.3 / 270

도시민민

- 신내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93.9.24 /I- 104
-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94.1.13 /I- 268
- 전국철거민연합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깃뎛히고 있다"/94.6.22 /II- 238
- 백골단 집단구타 철거민연합 평화집회 이수라장 /94.9.6 / 134

미군범죄

- 미군범죄 근절대책 촉구,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93.8.6 /I- 36
- 김국해씨 폭행미군, 30일 선고/93.8.25 /I- 55
- 법원, 김국해씨 폭행범 존 로저 공판재개하기로/93.9.8 /I- 79
-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 8일 광주교대 이경동씨/93.9.9 /I- 81
- 재판부, 김국해씨 증인들기로/93.9.9 /I- 82
-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부분 추가기소 안해/93.10.7 /I- 117
-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택시기사들 엄중처벌 약속받고 해산/93.12.21 /I- 237
-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94.1.7 /I- 257
-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94.1.20 /I- 281
- 미군 또 택시기사 수갑채워 강제연행, 동두천/94.3.4 /II- 72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94.4.13 /II- 135
- 대법원,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94.4.30 /II- 162
-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94.7.6 /II- 261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공청회 발표문 요약)/94.9.30 / 162, 163
-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94.10.6 / 172
-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94.11.5 / 222
- 동두천시민회, 미군상대 단식농성, 거리서명 /94.11.8 / 225
- 동두천시, 미군지프피해자 배상금 지급위해 노력하기로 /94.11.11 / 231
-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94.11.22 / 246

<윤금이 사건>

- 윤금이 공대위 소식/93.8.4 /I- 31
- 윤금이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93.10.29 /I- 151
- 오늘,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 열려/93.10.30 /I- 153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93.11.19 /I- 183
- 윤금이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객들 항의/93.12.17 /I- 231
-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운동/93.12.17 /I- 231
- 검찰,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93.12.22 /I- 238
-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4.23 /II- 152
- 대법원,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94.4.30 /II- 162

- 윤금이 살해범 마를, 천안교도소에 수감/94.5.19 /II- 186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94.11.3 278 / 218
-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 /94.11.3 278 / 22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93.9.9 /I- 82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안내/93.9.16 /I- 91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선언문/93.10.27 /I- 147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93.10.27 /I- 146
- 단체탐방 7/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93.12.17 /I- 232
-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94.2.16 /II- 38
-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 전국 13개 지역/94.3.25 /II- 106
-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94.4.2 /II- 122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수사권행사 시정 촉구/94.4.13 /II- 135
-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4.23 /II- 152
- 기지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94.6.23 /II- 240
-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4.6.30 /II- 250
- 미군범죄근절본부, 김분임씨 살해범 검거촉구/94.7.19 208 / 86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공청회 발표문 요약)/94.9.30 255 / 162, 163
-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94.10.6 258 / 172
-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 /94.11.3 278 / 218
-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처벌하라”,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94.11.9 282 / 226

법제

-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93.8.11 /I- 40
-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기초발제문(발췌)/93.8.11 /I- 41
-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93.11.19 /I- 183
- 형사법정운영표준례/93.11.19 /I- 184
- 사후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93.11.25 /I- 191
- 조영래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93.12.10 /I- 218
-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대한변협 성명서 내/94.1.19 /I- 278
- 대한변협 성명서/94.1.20 /I- 281
-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94.2.4 /I- 312
- 광주고법 강병섭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94.2.18 /II- 45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94.2.18 /II- 45
-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경험 나누기, 한·일 법률가 교류/94.3.23 /II- 103
- 법조개혁안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94.4.2 /II- 122
-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94.3.30 /II- 113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행권씨/94.4.13 /II- 136
-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성 기대”/94.4.14 /II- 137
- 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94.4.14 /II- 137
- “수사기록 등재거부는 위헌적 행위”,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94.4.26 /II- 153
- ‘변호사 자격심사, 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 개정의견 제출/94.5.4 /II- 168
-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등 3만건 전산화 완료/94.5.11 /II- 177
- 대법원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94.7.8. / 39
- 경실련 「검찰개혁 공청회」 “검찰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94.7.12 / 39
-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 법대협 창립 /94.9.8 / 43
- 기소권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경실련 토론회 /94.11.8 / 225
-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김동한) /94.11.16 / 239
- 집중심리 오용, 지존파·사법정의토론회 /94.11.22 / 247
-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발간/94.11.30 / 260

<긴급구속>

- 긴급구속장 남발, 족속수사 비난/94.8.11 / 97
- 민정련간부 긴급구속/94.8.30 / 121
-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긴급구속 /94.9.7 / 135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해 긴급구속 /94.10.7 / 174
-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민교협 성명서)/94.10.11 / 181
- 민교협, 안기부장에 공개사과 요구/94.10.11 / 180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94.10.15 / 187
- 긴급구속, 경찰·검찰·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94.10.18 / 194
-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94.10.20 / 193
- 인권침해 우려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성명 /94.10.20 / 194
- 인터뷰 : 박세경 변호사-긴급구속을 해부한다/94.10.21 / 196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94.10.25 / 200
-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94.10.25 / 200
-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94.11.24 / 251

<사형제도>

-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94.2.3 /I- 311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94.3.22 /II- 101
- 사형제도 폐지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94.4.7 /II- 128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94.4.19 /II- 144
-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94.4.22 /II- 149
-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94.5.13 /II- 181
- 미국 사형선고 인종차별 논란, 마약관련 기소자의 75% 백인, 36명 사형자중 흑인 28명/94.5.27 /II- 199
-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촉구/94.6.8 /II- 217

- 사형제도자료집 발행, 예장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94.6.14 /II- 225
-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94.7.7 /II- 262
- 사형폐지협, "흉악범죄 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94.10.7 / 175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94.10.8 / 177
-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 사형폐지·생명존중 운동 시작 /94.10.15 / 188
- 집중심리 오용, 지존파·사법정의토론회 /94.11.22 / 247
- 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94.11.29 / 258

<손해배상청구소송>

-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김귀정씨 손해배상 청구/93.9.24 /I- 103
-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중경씨 손해배상, 수원지법/94.1.26 /I- 289
-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94.2.8 /II- 31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19 /II- 186
-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26 /II- 197
-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열려/94.6.2 /II- 211
-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94.6.16 /II- 229
- 고 박창수 열사 공판 열려/94.6.3 /II- 212
-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7.13 / 46
-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94.8.24 / 112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중/94.8.24 / 113
-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 조선일보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94.10.20 / 194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등/94.1.19 /I- 278
-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94.6.4 /II- 214
-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94.6.17 /II- 230
-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민변/94.6.25 /II- 245
-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94.7.6 /II- 262
-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94.8.30 / 121
- 대한변협·민변, '정치관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94.8.31 / 122
-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94.9.2 / 129
- '헌법재판관 임명청문회 반드시 필요', 설문결과 /94.9.2 / 130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촉구/94.9.8 / 138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문/94.9.8 / 139
-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정경식 헌재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94.9.13 / 146
-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94.9.14 / 148
- 민변·참여연대·대한변협·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 /94.9.14 / 148
-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94.9.16 / 152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94.9.29 / 160

북한인권

-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94.1.27 /I- 291
- 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94.2.8 /II- 32
- 남북대화 진전위해 국보법 철폐 요구, 북한 외교부/94.3.9 /II- 82
- 별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94.4.14 /II- 137
- 엠네스티 "남한, 북한별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94.4.21 /II- 148
- "북한인권 거론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94.4.22 /II- 149
-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94.5.13 /II- 181
-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요구,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94.7.7 /II- 262
- AI 151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남북한에 대한 요구/94.7.7 /II- 264
- 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94.7.12 / 44, 45
- 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94.8.23 / 110
-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94.11.30 / 260

불처벌

- 정부 대표,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II- 58
-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94.2.24 /II- 58
- 인혁당 사형집행자 추모제, 서대문 옛사형터/94.4.9 /II- 131
-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94.4.14 /II- 138
-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토론회/94.6.11 /II- 222
-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94.6.14 /II- 225
-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등 필요/94.6.17 /II- 231
-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94.7.6 /II- 261
-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7.13 / 46
- 함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 /94.9.6 / 133
-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등 /94.10.14 / 186

<12·12>

-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등 필요/94.6.17 /II- 230
- 12·12 기소유예는 검찰 직권남용, 대한변협 12·12 사건토론회 /94.11.9 / 227
- 검찰청 항의시위등 12·12 기소조치 촉구 /94.11.12 / 234
- 12.12 기소위해 12.12까지 매일 대검앞 항의집회 /94.11.17 / 240

<오월광장어머니회 >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94.4.29 /II- 159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94.4.29 /II- 160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방문,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 문제등 토론회기/94.5.26 /II- 196

- 정치·종교·법조·문화계등 '5월광장 어머니회'초청인단 참여/94.6.1 /II- 207
- 각계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94.6.1 /II- 207
- '5월광장 어머니회」한국방문 예정,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등 토론회기/94.5.26 /II- 212
- 5월광장어머니회 도착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94.6.4 /II- 214
- '오월광장어머니'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94.6.8 /II- 216
- 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94.6.9 /II- 218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94.6.10 /II- 220
-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토론회/94.6.11 /II- 222
-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뉘,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94.6.14 /II- 224
-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94.6.14 /II- 225
-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4년 옥살이 김선명씨/94.6.15 /II- 227
- "희망과 연대의 시작", 오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94.6.17 /II- 230
- 지상중계;인권침해자 '불처벌'문제 공소시효 부적절, 광주학살등 '특별검사제'등 필요/94.6.17 /II- 231

<5·18>

- 광주민중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국제심포지움 개최, 망월동 기념 돌탑쌓기도/94.5.10 /II- 175
-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등 35명 고소·고발/94.5.14 /II- 183
-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 창작판소리 '5월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94.5.17 /II- 185
- 단체탐방 21-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94.5.21 /II- 191
-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94.5.25 /II- 194

<삼청교육대 >

-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요구,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94.5.21 /II- 190
- 단체탐방 24-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94.7.2 /II- 259

<정신대>

- 정부, 정신대 '배상·보상 요구 양기로' 재천명/93.9.2 /I- 65
- 「정신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8월 25일, 강만길 교수 4등 학계중심으로/93.9.8 /I- 80
-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93.10.30 /I- 153
-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93.10.30 /I- 153
- 미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93.11.12 /I- 174
- 일본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 명단/93.11.12 /I- 175
-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93.12.22 /I- 238
- 위안부 문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93.12.22 /I- 239
- 유엔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룬 예정/94.2.15 /II- 35
- 일본경찰 전범행위자 처벌요구 무시,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94.2.15 /II- 35
- 유엔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룬 예정/94.2.15 /II- 35
- 정신대 다룬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 모금액, 「나눔의 집」에 전달예정/94.2.26 /II- 60
- 일본전쟁책임 공식사죄 대책수립 요구, 태평양유족회/94.3.3 /II- 70

- 여성인신매매, 전쟁피해문제 회의, 동경/94.3.5 /II- 76
- 정신대문제 다룬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94.3.8 /II- 78
- 정신대 전금화 할머니 사망, 대통령 방일때 '진상규명·배상' 요구해야/94.3.15 /II- 90
- 정신대 고 전금화씨 장례식/94.3.19 /II- 98
-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회결의등/94.6.8 /II- 217
-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 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94.7.9. /42
- 국제중재재판소란?/94.7.20 /62
-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94.7.26 /69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영화 제작/94.7.27 /71
-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128차 정대협 수요시위 주관/94.7.28 /73
-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선행 촉구, 대한변협/94.8.10 /94
-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94.8.24 /113
-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94.9.3 /131
-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문/94.9.6 /134
-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등 권고 /94.9.6 /133
-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 /94.10.14 /186
- 국제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장 설치등 촉구/94.11.23 /148
-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요약)/94.11.23 /149

<정대협>-----> 여성

<조작간첩사건>

- 대법원, 김낙중씨 무기징역 확정/93.10.12 /I- 123
-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노중선씨 2심 선고공판 법정구속/93.10.16 /I- 131
-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93.11.9 /I- 168
- 북한적십자회, 한국적십자사에 출소 장기수 김국홍·함세환노인 송환 요구/93.12.9 /I- 215
-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 /94.11.2 277 /216
- 부산신씨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94.11.18 289 /243
-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 /94.11.29 296 /258
- 이화춘씨 사건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94.12.2 299 /268

사회보장권

-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심포지움/94.2.25 /II- 59
-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94.3.19 /II- 98
- 인터뷰: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 교수/94.4.16 /II- 142
-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94.4.16 /II- 142
-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94.5.19 /II- 186
- '보육은 남녀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94.5.20 /II- 189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94.6.9 /II- 219

·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94.9.3 241 / 131

수배해제, 사면, 복권

<6공학생수배자>

·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93.8.13 /I- 43

·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93.8.13 /I- 44

·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여명 서명받아/93.8.24 /I- 53

·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12명 새로 합류, 28일 '가족 상봉의 날'/93.8.26 /I- 57

· 학생 수배자들, 가족들과 상봉, 연세대에서/93.8.31 /I- 63

·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등 요구/93.9.3 /I- 67

· 수배해제 촉구대회, 오늘 연세대 광장에서/93.9.7 /I- 73

·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 7일 연세대 민주광장/93.9.8 /I- 79

· 성명서: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93.9.8 /I- 80

· 정치수배자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정치수배자들의 친구·선후배/93.9.15 /I- 90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불교인권위·한교협인권위/93.9.21 /I- 97

· 6공 정치수배자 기자회견, 자진출두 않기로, 3일 86일간 농성 풀기로/93.11.3 /I- 160

양심선언, 군

·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93.8.17 /I- 47

· 이문옥 감사관 무죄판결/93.9.7 /I- 74

·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94.1.21 /I- 283

·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94.4.7 /II- 128

· 서울고법 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필요"/94.4.28 /II- 157

·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94.5.6 /II- 171

·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대책위등 공청회/ 94.5.10 /II- 174

·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94.5.11 /II- 177

·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목요집회, 양심선언자 제도적 보호 절실/94.5.13 /II- 180

· 한준수 전연기군수 고심에서도 유죄판결/94.7.1 /II- 255

· 상납비리 고발 전 경자 파면처분취소 소청, 참여연대 동참 /94.9.7 / 153

· 참여연대, 내부리비제보자 보호법 청원 /94.10.29 / 210

· 파출소 비리폭로경관 파면처분 지나치다, 총무처 소청심사위/94.11.15 / 236

· 양심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리비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94.11.24 / 244

· 윤석양 출소환영회 열려 /94.11.19 / 281

<양군모>

· 양심선언 군인전경대책위 결성키로/93.8.7 /I- 37

· '양심선언 군인전경대책위' 발족 /93.8.10 /I- 38

·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일부 게재)/93.8.10 /I- 39

·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93.8.18 /I- 48

· 강태영 일경 첫 재판에서 2년 구형/93.8.21 /I- 52

· 양심선언 군인전경 재판 열려/93.8.27 /I- 58

· 이종수 일경 재판연기 /93.8.28 /I- 61

· 이동익 일병 징역 2년 선고/93.9.1 /I- 64

· 고대성 일병 3년 선고/93.9.2 /I- 65

·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 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93.9.3 /I- 67

· 출감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김대영 탄원서 제출/93.9.4 /I- 68

· 김대영 의경 탄원서(발췌)/93.9.4 /I- 69

·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합의부 이송/93.9.8 /I- 79

· 이종수 전경 3년 구형/93.9.11 /I- 85

· 강태중 일경 집유 선고, 양심선언 군경 중 첫 집유/93.9.23 /I- 101

· 양심선언전경에 '재복무명령', 이지문 중위등 파면취소 탄원/93.10.8 /I- 119

· "양심선언 군인 전경 탈영이 아니다", 국감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93.10.15 /I- 129

· 단체탐방/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93.10.15/ I- 130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93.10.19 /I- 134

·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KNCC 인권위 사무실/93.10.19 /I- 133

·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씨 첫 공판 열려/93.10.20 /I- 135

·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93.10.23 /I- 141

· 박석진 일경 1년6개월 실형선고/93.10.23 /I- 141

·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등 청원/93.10.23 /I- 141

·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93.10.23 /I- 142

·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93.10.23 /I- 142

· 병무청,출소양심수 징집연기 의사 밝혀/93.10.29 /I- 151

·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93.10.30 /I- 153

· 5·6공 강제징집 희생자 위령제 열려, 양군모 주최/93.11.3/I- 160

·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93.11.9 /I- 169

· 6공 수형생활 양심수, 군문제해결 촉구, 서울등 전국 7곳 병무청 앞 시위/93.11.10 /I- 170

·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 앞 집회도 가져/93.11.16 /I- 178

· 양군모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131명 교수 1100여명 넘어서 /93.11.23 /I- 187

· 세번 '탈영병'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93.11.24 /I- 189

·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찬양/93.12.1 /I- 20

· 수형생활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촉구 교수단 기자회견/93.12.1/I- 201

· 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군모 9일까지 국방부 앞 /93.12.7 /I- 211

· 김대영·박영생 1년6월 선고/93.12.8/I- 213

· 시국관련 수행자 2년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받아들여/93.12.10 /I- 218

· 국방부 인사과장, 시국관련 수행자 보충역 편입 거부, 양군모 반발/93.12.9 /I-215

· 양심수 군문제 청원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93.12.18 /I- 233

-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국방부 앞 양군모 등 500여명 시위/93.12.15 /I- 227
- 양군모 81번째 농성중, 본회의 통과 국방부는 겹쳐히 받아들여야/94.1.16 /I- 253
-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군문제 해결을 위해 10일 총력투쟁/94.1.8 /I- 258
- 조정희 일병 국보법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군사법원/94.1.14 /I- 270
-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기독교 성직자 1,517인/94.1.25 /I- 286
-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94.1.27 /I- 293
- “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항소심 최후진술/94.1.28 /I- 293
- 양심수 사회복귀 보장 촉구, 양군모 대표 병무청장 면담도/94.1.29 /I- 295
- 박석진 일경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영등포교도소/94.2.1 /I- 299
-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교도소 앞/94.2.2 /I- 302
- 영등포교도소 앞, ‘소장 사과·징벌해제’ 농성중/94.2.3 /I- 309
-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측 공개사과도/94.2.4 /I- 312
- 박일경 징벌 풀려, 공개사과도 /94.2.4 /I- 312
- 양심선언 박석진씨 집행유예/94.2.8 /II- 31
-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해당자30%/94.2.17 /II- 42
- 광주고법 강병섭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대중 일경최후 진술 제지/94.2.18 /II- 45
- 양심수 군문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94.2.19 /II- 47
-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94.3.23 /II- 103
- 조정희씨 단식해제/94.3.24 /II- 105
- 양심선언 이종수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93.3.26 /II- 109
-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첫 공판/94.4.13 /II- 135
-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94.4.16 /II- 141
- 양심선언 조정희씨 ‘유죄’/94.4.20 /II- 146
-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대책위등 공청회/94.5.10 /II- 174
- 양심선언 이우형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94.5.14/II- 183
- 양심선언 전경 이우형씨 징역3년, 집행3년 선고/94.6.4 /II- 215
- 병무청의 약속과기-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위기 /94.11.4 / 220
-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문제 해결약속 /94.11.22 / 246
- 대학원학력자, 89년 3월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94.11.26 / 284

양심수, 장기수

- 대전교도소앞 밤샘농성 벌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측거부에 항의/93.8.6 /I- 35
- 대전교도소, 농성단에 폭력행사, 손병선씨 딸 방패에 머리 찍혀 부상/93.8.7 /I- 37
-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93.8.10 /I- 38
-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93.8.14 /I- 45
- 성순희씨(손병선씨 부인) 투병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93.8.17 /I- 46
- “손병선씨 일시 석방 불투명”/93.8.18 /I- 48
- “대법원, 손병선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호외/93.8.18 /I- 49

-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씨 장례식 참석 불허/93.8.19 /I- 50
- 손병선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93.8.20 /I- 51
- 손병선씨 단식마쳐/93.8.21 /I- 52
-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유엔 구금실무위 규정/93.8.28 /I- 60
- 장의균, 황대권·김성만씨 사건개요/93.8.28 /I- 61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 결정문/93.8.31 /I- 63
- 연극 ‘완전한 만남’공연/93.9.7 /I- 74
-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홍성·춘천교도소등/93.9.21 /I- 97
- 심금섭씨 부인 위독,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93.10.8 /I- 119
- 심금섭씨 구속집행정지 신청·기각, 부인 김복희씨 사망/93.10.9 /I- 121
- AI, 수십명의 장기수 재심 촉구/93.10.13 /I- 125
- 앰네스티, 한국: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93.10.13 /I- 126
- 반민주·반통일 악법철폐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장총회 주최로/93.12.3 /I- 206
- 김선명씨 44년째 감옥살이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93.12.24 /I- 243
- AI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94.1.7 /I- 256
-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KNCC 인권위/94.1.12 /I- 263
- 통일원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성의 보일 경우’/94.1.26 /I- 289
- 김국홍씨등 송환 재촉구, 추진본부/94.1.28 /I- 293
-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교도소 앞/94.2.2 /I- 302
- 40년 감옥살이 안학섭씨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선정 전세계에 호소/94.2.2 /I- 302
- 영등포교도소 앞, ‘소장 사과·징벌 해제’ 농성중, /94.2.3 /I- 309
-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94.2.4 /I- 312
- 통일원 40년만에 가족상봉 김영태씨 허락 뒤 비전향이유로 취소/94.2.18 /II- 44
- ‘정치범 석방’ 단식농성, 재일단체, 오사카/94.3.15 /II- 91
-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 등/94.3.16 /II- 93
- ‘재일한국정치범 석방·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단식농성/94.3.24 /II- 104
-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94.4.1 /II- 119
- 출소장기수 김광삼 사망, 4.1 음성 꽃동네/94.4.7 /II- 128
-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씨 추모제, 출소장기수 여성 본인의사에 맡겨야/94.4.12 /II- 134
- 앰네스티, ‘한국방문의 해’ 맞아 전국교도소 표시 엽서 발간/94.4.21 /II- 148
- 529명 석탄일 가석방, 행형성적·복역기간등 ‘종합적 고려’/94.5.17 /II- 184
- 고 김광삼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94.5.19 /II- 186
- 19일 고 김광삼씨 49재/94.5.20 /II- 189
- 이세균씨에 대한 조치서/94.5.25 /II- 195
-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94.5.25 /II- 195
-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94.5.25 /II- 195
-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94.5.28 /II- 201
-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 요구, 송환추진본부 가족편지도 공개/94.6.2 /II- 211
- 고 이래선 1주기 추모제/94.6.10 /II- 221

- 재소자 청원권 및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제한/94.7.5 /II- 260
-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마산교도소 양심수/94.6.11 /II- 222
- 김선명씨 면화,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94.6.15 /II- 227
-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94.7.7 /II- 262
- AI 151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 요구/94.7.7 /II- 264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94.7.8. / 39
- 5월광장 어머니회, 김선명씨 석방촉구운동 벌여/94.7.19 / 86
- 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94.8.9 / 92
-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94.8.11 / 96
-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94.8.17 / 103
- 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94.8.23 / 110
- 함주명씨등 고문피해자 고문경찰관 고소·항고 /94.9.6 / 133
- 재일정치범 류정석씨 면회 외국인 이유로 거부 /94.9.7 / 145
- 전국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외 금지 /94.9.13 / 153
-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94.9.27 / 155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94.11.2 / 216
- 함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94.11.19 / 244
- 교도소 담을 넘나든 편지들/94.12.2 / 268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 홍성은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93.10.12 /I- 122
- 강기훈씨, 검찰 국감장 증인/93.10.12 /I- 122
- 홍성은씨 기자회견문(전문)/93.10.12 /I- 123
-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93.10.12 /I- 124
-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93.10.14 /I- 127
- '유서사건 총자료집' 판매중/93.8.4 /I- 131
- 강기훈공대위·민가협, 항의성명/93.10.26 /I- 143
- '문민적 사법부' sbs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시켜/93.10.26 /I- 143
- 강기훈공대위 성명서, 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93.10.26 /I- 144
- sbs '강기훈...' 방영취소,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93.10.27 /I- 145
- 민변 성명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93.10.27 /I- 147
- 제작진과 교약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93.11.6 /I- 166
- sbs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 계기로, PC통해 공개토론 진행/93.11.6 /I- 166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불방에 대한 입장, 교양PD, 제작진 일동/93.11.6 /I- 167
- Hitel,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발췌)/93.11.6 /I- 167
- '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 시청자위원회 심의 안해/93.11.12 /I- 174
- 강기훈씨 17일 새벽 만기출소/94.8.17 / 102
- 인터뷰 : 강기훈씨/94.8.17 / 103

- 강기훈씨 어머니 수기집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출간/94.9.14 / 147
- 강기훈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94.10.7 / 175
- 강기훈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허위공문서 작성부분)/94.10.7 / 176
- 강기훈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위증부분)/94.10.8 / 178
- 함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94.10.29 / 210

<조작간첩사건>-----> 불처벌

여성

- 여성단체 한 건물로 이사, '여성 평화의 집' 마련/93.8.12 /I- 42
- 여성운동의 장충동 시대 개막, 17일 여성 평화의 집 개관식/93.9.18 /I- 95
- 김삼석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씨, 김삼석씨 안기부원 이름 밝혀/93.10.21 /I- 137
-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94.1.18 /I- 274
- 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94.1.21 /I- 282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점, '여연' 정기총회, 여성의 권익 향상 위해/94.2.2 /I- 302
-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94.2.4 /I- 312
- '모성보호 확대' 구체화 요구, 여성계, 무급생리휴가 폐지도/94.2.5 /II- 29
-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 대회준비/94.2.24 /II- 56
-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샵, 방콕/94.3.3 /II- 71
- "가정민주주의는 평화·민주주의·평등의 기초",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 토론회/94.3.4 /II- 72
-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실종'반대 캠페인, AI 세계여성의 날 맞아/94.3.4 /II- 72
-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94.3.9 /II- 81
-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94.3.9 /II- 82
-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 진출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7차 여성노동자대회/94.3.8 /II- 78
- 94년 여성노동자선언/94.3.8 /II- 79
-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94.3.9 /II- 81
-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94.3.9 /II- 82
- 각지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열려, "여성인권 보호,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94.3.16 /II- 92
- '여연' 94년 여성운동상에 홍미영씨 선정/인터뷰-홍미영씨/94.3.18 /II- 96
-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의석 20% 할당제 주장/94.3.29 /II- 100
- 대구지역 여성단체 첫 여성의 날 기념행사/94.3.22 /II- 100
-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여성대회'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 요구/94.3.23 /II- 103
- '여성고용약화' 인식공유, 여성지도자·정무장관 간담회/94.3.25 /II- 107
-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94.4.7 /II- 128
- 여성이 쓴 여성이야기/94.4.16 /II- 141
-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94.5.6 /II- 171
-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94.5.26 /II- 196
-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여성노동자회/94.8.9 / 93

- 전국여성대회 열려 /94.10.16 / 150
- 광고시간확대 여성상품화 가속, 여성민우회 성명 /94.9.15 / 188
-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94.11.30 / 260

<가정폭력>

- 확대당하는 아동 '아내구타 가능성 높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94.3.24 /II- 104
-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쉼터 이용자 통계분석)/94.3.26 /II- 109
-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94.3.29 /II- 111
-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추방운동, 여성의 전화등 5월 6-13일 추방주간 선포/94.4.27 /II- 155
-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여성의 전화등 가정폭력 추방캠페인/94.5.7 /II- 172
-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94.5.11 /II- 176
-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94.5.13 /II- 180
-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94.5.14 /II- 182
-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94.6.16 /II- 229
- 부친살해혐의 여대생 양애리씨에 7년 선고 /94.10.27 / 205
- 아동학대예방세미나,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결 미룰 수 없다/94.12.3 / 269

<북경여성대회>

- 유엔 북경여성대회 소식(2), 유엔, 나라별 보고서 작성요령 발표/94.2.17 /II- 43
- 아시아학생연합,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94.3.31 /II- 115
- 아·태지역 AI회의, 7.28-31 북경여성대회등 논의/94.5.6 /II- 170
- NGO한국위원회 북경대회 발전전략세미나,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94.10.8 / 177
- 인터뷰 :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미경씨 /94.10.12 / 183

<이순심씨사건>

-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94.1.18 /I- 274
-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살인혐의로 기소/94.2.16 /II- 38
- 시민들이 직접 재판 감시한다, 이순심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94.3.9 /II- 81
-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이순심 석방 방청인단' 21일 결성/94.3.18 /II- 97
- 이순심씨 석방위한 방청인단 결성, 여성의 전화등 17단체 참여/94.3.22 /II- 100
-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씨 첫 공판/94.3.23 /II- 102
-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씨 2차공판,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94.4.13 /II- 135
- 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94.4.23 /II- 151
- 이순심 석방촉구 거리서명, 서울·수원·안양 7곳/94.4.26 /II- 153
-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친구 증인, 아들도 정상참작 호소/94.5.11 /II- 176
- 이순심씨 증인신문/94.6.1 /II- 207
- 이순심씨 10년 구형,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94.6.15 /II- 227
- 이순심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 /94.6.29 /II- 249
- 이순심씨 항소심 /94.9.8 / 139

-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94.9.7 / 135
- 이순심씨 자녀 증인신문 /94.9.29 / 160

<최형자씨 사건>

-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93.10.26 /I- 143
-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93.11.5 /I- 164
-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93.11.5 /I- 165
- 이형자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 10시 부산고법/93.11.9 /I- 168
- 부산고법 이형자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93.11.12 /I- 174
- 이형자씨 변론요지서(일부 게재)/93.11.12 /I- 175

<성폭력, 성희롱 일반>

-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설문조사 결과/93.10.29 /I- 150
-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성폭력 예방교육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93.11.23 /I- 187
-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행,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최영애/93.11.23 /I- 1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93.12.21 /I- 237
-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93.12.21 /I- 237
- sbs '투맨쇼' 15일 성희롱 토론론너 마련/94.1.15 /I- 272
-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94.2.8 /II- 31
- 성폭력 '지킴이' 지원 쇄도/94.4.23 /II- 152
- '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여성민우회등 주최/94.4.28 /II- 158
-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토론회,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화 필요' /94.4.30 /II- 162
-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94.6.28 /II- 246
-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린터' 문열어 /94.9.13 / 145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린터' 개설 /94.9.15 / 150
-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94.9.30 / 161
-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94.10.6 / 172
-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94.10.6 / 173
- 성폭력위기관리 제3기 지킴이 공개모집 /94.10.12 / 183
-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94.10.13 / 184
- 민우회,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발간 /94.11.9 / 227
- 성희롱, 권력에 의한 것,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94.11.10 / 229
-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 /94.11.26 / 286

<서울대 우조교사건>

-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93.10.20 /I- 135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93.10.20 /I- 136
- 공동성명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93.10.20 /I- 136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총장에 항의서한 보내/93.11.6 /I- 167

- 성희롱사건 첫 법정공방 시작/93.11.24 /I- 189
- 서울대 교수 성희롱사건 경과/93.11.24 /I- 190
- 직장내 성희롱문제 토론, '성희롱공대위' 주최/93.12.7 /I- 211
-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93.12.8 /I- 213
-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이종걸/93.12.8 /I- 214
- 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증인신문, 2차공판 "성희롱 장면 목격했다"/93.12.22 /I- 238
- 서울대교조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94.2.2 /I- 302
- '성희롱 항의' 시위, 서울대 성희롱대책위/94.3.3 /II- 71
-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당사자 번역/94.3.17 /II- 95
- 우조교습기 일일주점 열려/94.3.22 /II- 100
-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총장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94.4.19 /II- 143
-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94.4.19 /II- 144
-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94.7.13 /46
- 성모욕 사건 항소심 공판/94.8.24 /113
- 우조교 항소심 3차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94.10.12 /182
-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94.10.13 /185
-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94.10.14 /186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위기센터」 문열어, 성폭력상담소/93.12.14 /I- 224
- 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94.1.13 /I- 268
- 여성학 공개강좌, 한국성폭력상담소/94.3.12 /II- 88
- '지킴이' 모집기간 연장, 성폭력상담소 4월 9일까지/94.4.1 /II- 119
- 성폭력 '지킴이' 지원 쇄도/94.4.23 /II- 152
- 성폭력 피해 여성위한 '열린터', 문열어 /94.9.13 /145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린터' 개설 /94.9.15 /150
-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 /94.11.26 /256

<여성민우회>

- '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민우회/94.3.16 /II- 92
- 민우여성학교 개설, 한국여민회/94.4.2 /II- 122
- 부부관계의 중심축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여성민우회 가족실태조사 결과/94.5.24 /II- 192
-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94.5.26 /II- 196
- 제2기 모니터 교육/94.5.28 /II- 201
- 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일 '여성상담심포지움'/94.6.1 /II- 207
- 단체탐방 22-한국여성민우회/94.6.4 /II- 215
- 여민회 상담원교육 실시/94.6.18 /II- 233
- 전문상담교육실시, 여민회/94.7.29 /75
- 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94.8.18 /105

- 광고시간확대 여성상품화 가속, 여성민우회 성명 /94.9.15 /150
- 민우회,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발간 /94.11.9 /227

<정대협>

- '위안부' 문제 정부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93.8.11 /I- 40
- 일본정부의 강제 중군위안부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정대협 입장(요약)/93.8.11 /I- 41
-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93.8.12 /I- 42
- 외무부의 정대협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전문)/93.9.2 /I- 66
- 외무부 답신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93.9.2 /I- 66
- 정대협, 사회당 위원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요구/93.9.9 /I- 82
- 정대협 '수요시위'/93.9.15 /I- 89
- 정대협 북한 접촉승인 요청, 전후문제 처리 토론회 참가 위해/93.10.8 /I- 119
- 정대협 대표단 20일 출국/93.10.20 /I- 135
-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93.10.21 /I- 138
- 정대협 대표 5일 평양으로, 전후처리 국제토론회 참석차/93.11.5 /I- 165
-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93.11.6 /I- 167
-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93.11.9 /I- 169
- 『정신대 자료집 IV』 발간/93.11.11 /I- 173
- 정대협 대표 평양토론회 참가 기자회견/93.11.13 /I- 176
-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법적 책임 이행할 때"/93.12.23 /I- 242
-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93.12.23 /I- 242
-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제103차 수요시위/94.1.20 /I- 280
- 일본 검찰에 '군 위안부' 책임자 고소·고발장 발송, 정대협/94.1.29 /I- 295
- "국제화는 정신대문제 올바른 해결로부터", 2일 105차 수요시위/94.2.3 /I- 309
-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94.2.5 /II- 29
-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요구 무시,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94.2.15 /II- 35
- 유엔인권위도 중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94.2.15 /II- 35
- 민간단체 700여명 사상 최대, 정대협·KONUCH 대표단 참석중·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II- 58
- 단체탐방 11-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94.3.5 /II- 77
- 정신대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무산, 유엔 인권위원회/94.3.8 /II- 78
- 정대협, 국회내 정신대특위 설치요구/94.3.12 /II- 88
-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94.3.17 /II- 95
- '일본 전쟁책임 확실히', 정대협·전국연합/94.3.23 /II- 103
-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전국연합등/94.3.24 /II- 104
- 정대협 114차 수요시위, 법적 해결은 인권각성 계기/94.4.14 /II- 137
- 정대협, 116차 수요시위/94.4.28 /II- 157
- 일본교과서에 '정신대' 범죄 명기요구, 정대협 117차 수요시위/94.5.6 /II- 170
- 일 법무상 '중군위안부는 공창', 정대협 해임요구/94.5.10 /II- 174
- 일 법무상 '중군위안부는 공창', 정대협 해임요구/94.5.10 /II- 175

- 120차 정대협 수요시위/94.6.2 /II- 211
-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회결의등/94.6.8 /II- 217
-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94.6.23 /II- 240
-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94.6.30 /II- 251
- 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 안해, 정부 위안부 대책/94.7.6 /II- 262
-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94.7.21 / 61
- 정대협 청와대 면담요구 강제해산 항의서한/94.7.22 / 65
-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94.8.4 / 86
-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94.8.24 / 112
-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94.8.30 / 121
-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94.9.2 / 129
-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위해 일본 방문 /94.9.16 / 152
- 정대협,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회견 일본언론 관심 많아/94.9.30 / 163
- 일본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운동 시작/94.10.26 / 202
- 외무부,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해’ 기존입장 재확인 /94.10.29 / 210
-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94.11.24 / 250
- 일본군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 /94.11.29 / 287

<지탁연>

- 단체탐방 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93.11.18 /I- 182
-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94.5.19 /II- 186
- ‘보육은 남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94.5.20 /II- 189
- 지탁연, 일본 탁아시설 방문/94.7.23 / 66

<한국여성의 전화>

- 단체탐방 5/한국여성의 전화/93.12.2 /I- 205
-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에 지부 개원/94.1.26 /I- 289
- 여성상담 교육생 모집중, 여성의 전화/94.3.11 /II- 86
- 「인천여성의 전화」 개원후 활발한 활동/94.3.22 /II- 101
-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쉼터 이용자 통계분석)/94.3.26 /II- 109
-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94.3.29 /II- 111
- 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여성상담심포지움’/94.6.1 /II- 207
- 여성상담심포지움 마련, 여성의 전화/94.6.3 /II- 212
- 켈거리 여성단체 방문, 여성의 전화/94.7.15 / 51
- 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94.8.18 / 105
- 여성의 전화 강서지부 개소/94.9.27 / 155
- 여성문제 요약한 여성수첩 95년판 발행 /94.10.15 / 188

인권교육

- ‘제도개혁, 인권교육’ 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장 취임/93.10.6 /I- 115
- 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팔/94.2.8 /II- 32
-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94.4.8 /II- 130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인권교육 등 사업 결의/94.6.21 /II- 235
- 국제사면위 한국·일본지부 인권교육 마련/94.9.7 / 135
- 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일본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개최 /94.9.13 / 145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94.10.12 / 182
-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서준식) /94.10.22 / 198, 199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94.10.22 / 197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94.10.26 / 203, 204
-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타이 방산/94.11.23 / 249

인권단체

<고난모임>

- 단체탐방 6/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93.12.9 /I- 216
- ‘고난’ 새대표에 신경하 목사/94.3.15 /II- 90
-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 등/94.3.16 /II- 93
-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94.4.1 /II- 119
- 국보법 폐지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94.4.7 /II- 128
- 동의대 사건 관련자 구명운동, 고난 28일 기도회등/94.4.27 /II- 155
-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94.5.25 /II- 194
- ‘고난모임’ 실무간사 수련회/94.6.23 /II- 240
-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94.6.30 /II- 251
- 「고난」 8월 3주간 통일학교 개최/94.7.28 / 73
- 14일 고난 운영위,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 /94.10.15 / 188

<교회협 인권위>

-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가능한가,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93.8.6 /I- 35
-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93.8.11 /I- 40
-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기초발제문(발췌)/93.8.11 /I- 41
- 월간인권 9월호 발행, 한교협 인권위/93.9.18 /I- 95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불교인권위·한교협인권위/93.9.21 /I- 97
- ‘제도개혁, 인권교육’ 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장 취임/93.10.6 /I- 115
- 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장의 취임인사말/93.10.6 /I- 115
-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93.10.14 /I- 127
-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93.10.19 /I- 133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93.11.19 /I- 183

- 성명서-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KNCC 인권위)/93.12.11 /I- 219
- 성명서:살인누명 김기웅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93.12.11 /I- 219
- 성명서: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93.12.28 /I- 245
-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KNCC 인권위/94.1.12 /I- 263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권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94.6.28 /II- 246
-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요약)/94.6.28 /II- 247
- 단체탐방 15-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94.4.2 /II- 123
- 사형제도 폐지탄원,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94.4.7 /II- 128
-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94.4.22 /II- 149
-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언·사진등 모집/94.5.25 /II- 194
- 신임 한교협 인권위원장에 김상근목사/94.5.26 /II- 197
-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 요구, 송환추진본부 가족편지도 공개/94.6.2 /II- 211
- 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도/94.6.24 /II- 241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권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94.6.28 /II- 246
- 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도/94.6.24 /II- 241
-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94.6.28 /II- 247
-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94.7.2 /II- 258
- 한교협 인권위, 전대협 동우회등 “사과해명 요구”/94.7.22 /63
-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방문 및 세미나 참석/94.9.29 /159
-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인시설등 방문 /94.10.6 /173
-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KNCC인권위 /94.11.17 /241

<대한변협>

-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대한변협 성명서 내/94.1.19 /I- 278
- 대한변협 성명서/94.1.20 /I- 281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촉구, 대한변협/94.4.6 /II- 124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수사권행사 시정촉구/94.4.13 /II- 135
-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94.4.14 /II- 137
-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 개정의견 제출/94.5.4 /II- 168
-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94.5.31 /II- 203
-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94.7.6 /II- 263
-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선행 촉구, 대한변협/94.8.10 /94
-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처벌 요구, 변협/94.8.18 /105
-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94.8.31 /122
-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94.9.3 /131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촉구/94.9.8 /138
-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문/94.9.8 /139
-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정경식 현재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94.9.13 /146
- 민변·참여연대·대한변협: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 /94.9.14 /148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94.10.1 /167
-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94.10.21 /195
- 12·12 기소유에는 검찰 직권남용, 대한변협 12·12 사건토론회 /94.11.9 /227

<서울지방변호사회>

-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중/93.11.5 /I- 164
-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93.11.18 /I- 181
- <시민과 변호사> 창간, 서울변호사회/94.1.29 /I- 295
- 인천 당직변호사제 실시, 인천지방변호사회/94.2.2 /I- 302
- 성희룡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94.2.8 /II- 31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등 6개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94.3.18 /II- 97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94.3.9 /II- 82
- “수사기록 등재거부는 위헌적 행위”,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94.4.26 /II- 153
- ‘법률구조제도 개선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94.5.24 /II- 193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고문

<민가협>

- 민가협·범주본 명동성당 농성 속보, 가두선전 및 장기수 한마당 가져/93.8.5 /I- 33
- ‘민가협’ 수련회/93.8.25 /I- 55
- 민가협, 23일 첫 목요일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93.9.24 /I- 103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석방요구, 민가협 2차 목요일시위/93.10.8 /I- 118
- 민가협 ‘목요일집회’ 가져/93.10.15 /I- 129
- 강기훈공대위·민가협, 항의성명/93.10.26 /I- 143
-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93.10.27 /I- 145
-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인재근·박충렬씨 증언/93.11.5 /I- 164
- 민가협 7차 목요일집회,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요구 /93.11.12 /I- 174
- 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93.11.26 /I- 193
- 민가협 열번째 목요일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93.12.2 /I- 204
-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민가협 10차 목요일집회/93.12.3 /I- 206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93.12.14 /I- 224
-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93.12.23 /I- 241
- 성명-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민가협/93.12.24 /I- 243
- 성명서: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KNCC 인권위/93.12.28 /I- 245
-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단체/93.12.29 /I- 246
-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목요일집회’ 새해 계속/94.1.7 /I- 256
-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일집회’/94.1.21 /I- 282
-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일집회」/94.2.18 /II- 44
-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 국보법 철폐’, 민가협/94.3.5 /II- 76

-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94.3.17 /II- 94
-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94.3.18 /II- 97
- 경찰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94.3.26 /II- 108
-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94.3.29 /II- 111
- 가수들 ‘희망새’ 석방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94.4.1. /II- 119
- 민가협 30차 목요집회/94.4.8 /II- 129
-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94.4.15 /II- 139
- 단체탐방 17-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94.4.15 /II- 140
-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94.4.16 /II- 141
- 민가협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요구/94.4.19 /II- 143
-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94.4.22 /II- 149
- 민가협 단식농성 풀어/94.4.20 /II- 146
- 양심수 후원회 6차 총회, 권오현 회장 재선출/94.4.26 /II- 154
-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94.4.29 /II- 159
-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목요집회, 양심선언자 제도적 보호 절실/94.5.13 /II- 180
- 민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94.5.28 /II- 201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94.6.10 /II- 220
-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94.6.17 /II- 232
- 안기부 고문사태 증언, 민가협 목요집회/94.5.27 /II-235
- “학생을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가협, 대규모 구속에 성명/94.6.22 /II- 238
-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위한 하루주점, 양심수후원회/94.6.22 /II- 238
- 언론의 남총련 폭력배 만들기 규탄, 민가협 목요집회/94.6.24 /II- 241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94.7.8. / 39
-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94.7.16 / 54
- “학생들은 신공안정국의 포로”, 민가협 목요집회/94.7.29 / 75
-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94.8.19 / 107
- 신공안정국 돌파논의, 민가협 수련회/94.8.25 / 114
- 창간 1주년 특집 3 -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인터뷰 - 채은아(민가협 간사) /94.9.9 / 142
- 6-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645명 민가협 발표 /94.9.9 / 142
- 민가협 55차 목요집회 /94.10.7 / 175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94.11.2 / 216
- 민가협 57차 목요집회 /94.11.4 / 220
- 민가협·전국연합등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94.11.11 / 231
- 민가협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 /94.11.26 / 256
-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94.12.2 / 268

<민교협>

-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학단협 등 5개 단체/93.8.5 /I- 34
-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94.4.16 /II- 141

- 민교협등 22개단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탄원서 제출/94.5.31 /II- 203
-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등 학계공동대응키로, 정정보도 요청/94.8.5 / 88
- 민교협·학단협·민예총등 7개단체 「공동대책준비위」 결성/94.8.6 / 90
-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94.8.13 / 100
- 민교협, “박홍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요구/94.8.20 / 108
- 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94.8.20 / 108
-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94.8.30 / 121
- 민교협 성명서;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94.9.1 / 128
- 민교협, 안기부장에 공개사과 요구/94.10.11 / 180
-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민교협 성명서)/94.10.11 / 181
- 인권침해 우려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성명 /94.10.20 / 194

<민변>

-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가능한가,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93.8.6 /I- 35
-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93.8.11 /I- 40
-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기초발제문(발췌)/93.8.11 /I- 41
-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93.10.21 /I- 137
- sbs ‘강기훈...’ 방영취소,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93.10.27 /I- 145
- 민변 성명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93.10.27 /I- 147
-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93.11.4 /I- 162
-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93.11.25 /I- 191
- 안기부법 폐지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93.11.25 /I- 192
-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94.2.22 /II- 51
- 단체탐방 19-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94.5.7 /II- 173
-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94.6.1 /II- 207
-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94.6.4 /II- 214
-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대법관 임명 토론회/94.6.17 /II- 230
-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94.6.17 /II- 230
-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민변/94.6.25 /II- 245
-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94.7.6 /II- 262
-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94.8.31 / 122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촉구/94.9.8 / 138
- 민변·참여연대·대한변협;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 /94.9.14 / 148
- 민변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94.9.28 / 157

<민주법연>

- 김영삼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법연 5주년 기념심포지움 예정/94.3.29 /II- 110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민주법연 심포지움(지상중계)/94.6 /II- 125
- 민법연 『민주법학』 7호,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등 특집/94.4.12 /II- 134

- 단체탐방 18-민주주의법학연구회/94.4.22 /II- 150
-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교수 선출/94.5.14 /II- 183

<불교인권위>

-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 불교인권위/93.9.21 /I- 97
-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93.10.6 /I- 114
-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을터", 수배자 대책위 /93.11.2 /I- 157
- 단체탐방 2/불교인권위원회/93.11.3 /I- 161
- 불교법률상담소 개설, 부산불교인권위/93.12.14 /I- 224
- 불교인권위 토론회/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한상범/ 93.12.15 /I- 228
-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등/94.3.12 /II- 88
- 부산불교인권위 1주기 법회/94.3.25 /II- 107
-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94.4.30 /II- 161
- 불교인권위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94.5.14 /II- 183
-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94.5.21 /II- 190
-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여명에 질문서 발송/94.5.24 /II- 193
- 철도·지하철 노동자 돕기 모금/94.8.20 /108
- 경찰 조계사 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항의/94.9.3 /131
-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재차 항의/94.9.6 /134
- 철도노동자를 위한 하루차집/94.10.15 /187

<유기협>

- 유기협 박정기 회장, 국순단 부단장 맡아/93.8.4 /I- 31
- 이내창열사 4주기 추모식 /93.8.17 /I- 47
- 유기협, 범민족대회 기간 국회청원 서명운동/93.8.18 /I- 48
- 김용갑열사,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 추모비 건립 추진/93.8.18 /I- 48
- '유기협' 호남지부 총회/93.8.25 /I- 55
- 속초 동우전문대 분규예고, 김용갑열사 추모비건립등 요구 단식농성/93.8.25 /I- 55
-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 단식농성 풀어, 재단측에서 요구사항 대부분 받아들여/93.8.31 /I- 62
- 검찰, 안기부 직원 증인 신청, 이공순 기자 25차 공판에서/93.9.9 /I- 81
-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 8일 광주교대 이경동씨/93.9.9 /I- 81
- 이경동씨 유서, 국민 여러분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93.9.9 /I- 82
- 분신한 광주교대 이경동씨 끝내 사망/93.9.10 /I- 83
- 고 이경동씨 「민주국민장」/93.9.11 /I- 85
- '의문사-고문등 과거청산 주력', 유기협 8차 정기총회/93.9.21 /I- 97
-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김귀정씨 손해배상 청구/93.9.24 /I- 103
- 이내창 열사 추모비 제막식/93.11.4 /I- 162
- "임용고사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씨/93.11.11 /I- 172
- 광주교대생 장례식 치뤄/93.11.13 /I- 176

- 이내창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 무죄/93.11.17 /I- 179
- 전태일 추모식 14일 열려/93.11.17 /I- 179
- 이내창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93.11.17 /I- 180
-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94.1.11 /I- 261
-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박종철열사 7주기/94.1.14 /I- 270
-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94.1.15 /I- 272
- 송광영열사 어머니 이오순씨 별세/94.1.27 /I- 292
- 단체탐방 10-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94.2.5 /II- 30
-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94.3.26 /II- 108
-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94.3.29 /II- 110
- 고 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앞에 사회' 요구/94.4.27 /II- 156
- 조성만열사 6주기 추모행사, 명동성당/94.5.14 /II- 183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94.5.19 /II- 186
- 김귀정 추모사업회 발족, 평전발간·장학기금 마련/94.5.24 /II- 193
-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94.5.25 /II- 194
-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소송/94.5.26 /II- 197
-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열려/94.6.2 /II- 211
- 고 박창수 열사 공판 열려/94.6.3 /II- 212
- '박래전열사' 추모식, 마석모란공원 참배/94.6.4 /II- 215
- 고 이한열 7주기 추모제, 연세대 교정/94.6.10 /II- 221
-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94.6.14 /II- 225
-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94.6.16 /II- 229
-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94.8.24 /112
- 유기협총회 신입회장 선출/94.9.27 /155
- 조정식열사 12일 추모비 개막 /94.10.15 /188
- 유기협 국회의사당 앞 시위,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94.10.22 /197
- 유기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94.11.4 /220
- 유기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94.11.4 /221
- 유기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 /94.11.5 /222
- 최태호이교 구타자 처벌/94.12.2 /268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성황/93.9.1 /I- 64
- '사랑방' 이성훈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94.1.7 /I- 256
- 「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94.1.27 /I- 292
-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94.1.28 /I- 293
- 「인권운동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요약)/94.1.28 /I- 294
-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발제 요약)/김정열/94.1.28 /I- 294
- 서준식 대표,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94.2.16 /II- 38

- 서준식씨의 안회권 검사 고발장/94.2.16 /II- 39
- 민중의교훈련 프로그램 참석 이성훈씨 귀국/94.2.17 /II- 43
-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국제정보브리핑' 모임/94.5.4 /II- 169
-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94.5.14 /II- 183
- 서준식대표 강연, 엠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사회권 영역등 시야확대 절실/94.7.30 /76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장연회 /94.10.22 /197
-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서준식발제요약) /94.10.22 /198,199
- 아시아여성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 /94.11.10 /229
- 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94.11.30 /260

<인권협>

- 유엔세계인권대회 평가회 열려/93.8.28 /I- 61
- 캐나다 인권단체 ICHRDD대표, KONUSCH 대표단 만날 예정/93.10.15 /I- 129
- 인권단체, 강수림의원과 인권현안 간담회 가져/93.10.29 /I- 151
-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93.11.9 /I- 169
-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93.12.2 /I- 204
- KONUSCH 대표단,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 참가, 2-3일 방콕/94.2.2 /I- 302
-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하게 사전준비/94.2.17 /II- 43
- 민간단체 700여명 사상최대, 정대협·KONUSCH 대표단 참석중-제50차 유엔 인권위 소식(1)/94.2.24 /II- 58
-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제50차 유엔 인권위 소식(2)/94.3.10 /II- 84
-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94.4.16 /II- 141
- 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94.4.20 /II- 146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추진/94.4.29 /II- 159
- 21세기를 위한 민중계획(PP21)', 확대조정위원회 열려/94.4.29 /II- 160
-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 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참가/94.5.13 /II- 181
-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94.5.13 /II- 181
- 조용환 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 참가위해 출국/94.5.28 /II- 200
- 각계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94.6.1 /II- 207
- 「한국인권협」 20일 창립/94.6.3 /II- 212
- 「5월광장 어머니회」, 한국방문 예정,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등 토론계기/94.5.26 /II- 212
- 5월광장어머니회 도착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준비/94.6.4 /II- 214
- 「오월광장어머니」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94.6.8 /II- 216
- 인권협출범,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인권교육 등 사업 결의/94.6.21 /II- 235
- 부산지역 인권단체협의회체등 논의중/94.6.23 /II- 240
- 인권협 집행위 열려/94.8.3 /84
- 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94.8.23 /110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94.10.12 /182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94.10.27 /203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94.10.27 /204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94.11.30 /259
- 동티모르 독립지지는는 행동에 나서게 인권단체 압력 필요/94.12.2 /267
-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94.12.3 /269
-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연대 호소, 로케 로드리게스씨 강연/94.12.3 /270
- 『동티모르 관련자료 모음』 소개/94.12.3 /270

<천주교인권위>

- 천정련 장기수 후원회, 지리산 3박 3일 수련회 가져/93.8.5 /I- 33
-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93.11.9 /I- 168
- 기자회견문:이장형·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93.11.9 /I- 169
- '고 황인철 변호사' 추도미사 및 추도식/94.1.20 /I- 280
- 단체담방 13-천주교 인권위원회/94.3.12 /II- 89
- 천주교인권위 연례모임 /94.10.5 /171
-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 /94.11.2 /216
- 부산신씨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94.11.18 /243
-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 /94.11.29 /258

인권일반

-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93.8.13 /I- 44
-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93.8.17 /I- 47
- 엠네스티 뉴스,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93.8.17 /I- 47
-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93.10.5 /I- 111
-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 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93.10.27 /I- 145
- 변호사 자격 실질적 심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93.10.28 /I- 148
- 성명서: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93.10.28 /I- 149
-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민가협 10차 목요집회/93.12.3 /I- 206
-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박원순/93. 12.4 /I- 209
-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이석태/93.12.10 /I- 217
- 조영래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93.12.10 /I- 218
- 문민적 정부 출범 첫째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 줄이어/93.12.11 /I- 219
-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93.12.11 /I- 221
-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한상범/ 93.12.15 /I- 228
- 성명-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민가협/93.12.24 /I- 243
- 성명(발췌)-민주당 인권위원장 강수림/93.12.24 /I- 243
- 발표문(발췌)-법무부,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대상자 명단/93.12.24 /I- 244
-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93.12.28 /I- 245
- 신년특집/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94.1.5 /I- 252
- '민족의 큰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어, 「통일의 선구자 문익환 목사 거례장」/94.1.20 /I- 280

-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 거래장」 소식/94.1.21 /I- 282
-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집회'/94.1.21 /I- 283
- 민주당 인권위 성명서: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94.1.21 /I- 283
- 「고 문익환목사 거래장」 소식/94.1.22 /I- 284
-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조전/94.1.22 /I- 285
-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 등 다룰 방침/94.2.18 /II- 45
-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94.2.22 /II- 51
-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도읍시다/94.3.2 /II- 65
-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94.3.3 /II- 70
- 아시아 선교대회 서울에서 열려, 4월 25일-5월 2일/94.3.3 /II- 71
-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AI 보고서 목차)/94.3.9 /II- 82
-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94.3.11 /II- 86
- 고 김남주 49재·추모의 밤, 서울 대각사·대구 민예총/94.4.2 /II- 122
- 민가협 4월혁명상 수상/94.4.16 /II- 141
- 문목사 추모행사 줄이어/94.4.21 /II- 147
- 광주민중항쟁 기념문화제, 창작판소리 '5월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94.5.17 /II- 185
- 윤상원상 수상자, 정광훈씨·극단 토박이/94.5.21 /II- 190
- 조선민족박해 규탄, 작가회의·민예총/94.6.29 /II- 249
- 탈냉전 이후 환경, 인구가동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민정련 국제관계교실/94.7.5 /II- 261
- 철도·지하철 이대로 좋은가, 시민·여성단체 토론회/94.7.19 / 56
- 여대협, 재일동포 폭행사건 대책수립 촉구/94.8.2 / 81
- 정부, A규약 보고서 검토회 연기 요청/94.8.4 / 8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간활동 연수 /94.9.10 / 143
- 서울변회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 /94.9.7 / 153
- 시민인권상 수상식/94.9.27 / 155
-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참여연대 토론회 /94.9.28 / 158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94.10.1 / 167
-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94.10.5 / 171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94.10.22 / 197
- 에이즈감염자단체 「스톱에이즈운동본부」 발족 /94.10.25 / 201
-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94.10.25 / 201
- 전교조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94.11.24 / 251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94.11.26 / 255

<언론의 인권침해>

- 민언협, 「93년 10대 왜곡·편파 보도사례」 선정/94.1.5 /I- 251
-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등 학계공동대응키로, 정정보도 요청/94.8.5 / 88
- 고 김남주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94.9.2 / 130
- 샘,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94.10.18 / 190

-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 조선일보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94.10.20 / 194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94.10.25 / 201
-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94.10.25 / 200
- 경찰발표 베낀 동아일보, 「샘」회원 강천규, 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 /94.11.12 / 233
-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94.11.30 / 260

<전국연합>

-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93.11.25 /I- 191
- 「일본 전쟁책임 확실히」, 정대협·전국연합/94.3.23 /II- 103
-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전국연합등/94.3.24 /II- 104
- 전국연합 「신공안통치중단, 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94.6.30 /II- 251
- 3% 가이드라인 철폐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94.7.2 /II- 259
- 이창복의장 구속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본격화/94.8.11 / 97
- 이창복씨 첫공판, 판사가 일방적 연기 /94.11.2 /107
-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94.8.18 / 105
- 이창복·황인성씨의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 발표/94.8.19 / 106
- 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94.8.19 / 107
- 전국연합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 요구 /94.9.6 / 134
- 이창복·황인성 6일 기소/94.9.7 / 137
- 범민족대회 관련 전국연합 최규업씨 조사받고 풀려나/94.9.13 / 146
- 이창복씨 첫 공판, 판사가 일방적 연기/94.11.2 / 216
- 전국연합등, 부패무능정권 규탄집회 /94.11.8 / 225
- 민가협·전국연합등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94.11.11 / 231
- 「인권위원회」 설립·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참여연대등 APEC에 요구/94.11.16 / 238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4년구형 /94.11.22 / 246

<통신비밀>

-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집 도청, 강수림·전노협 밝혀/93.8.20 /I- 51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 「검열」 제한/93.12.3 /I- 206
- 통신비밀보호법(요약)/93.12.3 /I- 207

<환경>

-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방해도/94.4.23 /II- 151
- 아시아 선교대회, 환경·원주민 문제등 논의/94.4.27 /II- 156
- 남북한 민간환경회의 제의, 환경운동연합/94.4.27 /II- 156
- 통신망 통한 환경정보 전달 환경운동연합, 내년 1월부터/94.6.11 /II- 223
- 방사성폐기물 반대시위,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94.6.22 /II- 237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94.7.5 /II- 261
- '94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위원회 결성/94.7.22 / 65

-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94.8.18 / 105
- 30개 환경·사회단체 반핵운동본부 결성/94.11.24 / 281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93.9.7 / I- 73
- '문민적' 시대에 인권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400여 독자에게 배달/93.9.7 / I- 74
- 창간격려문/93.9.7 / I- 75
- <인권하루소식> 선정 '93 인권 10대 뉴스',/93.12.29 / I- 247
- 지령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94.2.4 / I- 313
- 만화로 본 <인권하루소식>/94.2.4 / I- 314
-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94.7.7 / II- 265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문민적 정부 '인권파수꾼' 역할 /94.9.7 / 135

장애인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 장애인 무차별 구타/93.8.26 / I- 56
-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93.8.26 / I- 57
- 폭행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 공정성 의문/93.9.17 / I- 93
-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93.11.9 / I- 169
- '빈곤과 장애' 토론회, 15일 장애인 실태조사에 앞서/93.12.15 / I- 227
- 장애인잡지 <열린지평> 94년 봄호(2호) 발간/94.1.22 / I- 284
- '인권운동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요약)/94.1.28 / I- 294
-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요식행위 반발/94.2.26 / II- 60
- '장애인 문제는 한국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94.4.20 / II- 146
- 독일,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94.5.27 / II- 199
-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94.6.14 / II- 224
-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 중심 치료는 낡은 것",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94.6.30 / II- 250
- 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회/94.6.23 / II- 240
-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주민편견 극복되어야/94.7.27 / 71
- 단체탐방 29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94.8.20 / 10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장/93.10.5 / I- 111
- 단체탐방 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3.11.11 / I- 173
- '장애인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3.12.14 / I- 224
-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조홍식/93.12.14 / I- 225
- '장애우 대학' 6기 개설, 3월 18일부터 13주/94.2.23 / II- 53
-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 인권' 정책강좌/94.3.22 / II- 101
- 인터뷰: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94.4.20 / II- 146

- 전교조 창립5돌 행사,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94.5.26 / II- 196
-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94.5.31 / II- 203
-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치료는 낡은 것", 토론회, 격리야만 사회복귀 전제해야/94.6.30 / II- 250
- 창간 1주년 특집 2 - 장애인 /인터뷰-김성재 함께걸음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94.9.8 / 140
- 7기 장애우대학 개설/94.9.27 / 155
-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 토론회 /94.9.29 / 159
-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방문 및 세미나 참석/94.9.29 / 159
- 빈민장애인 삶 사진전,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94.10.1 / 167
-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시설등 방문 /94.10.6 / 173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토론회 /94.10.14 / 186
-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회 /94.11.19 / 244

<장애인교육>

-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93.9.10 / I- 84
-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장/93.10.5 / I- 111
-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단식돌입/93.10.16 / I- 131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93.10.16 / I- 132
-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93.11.5 / I- 165
-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93.11.6 / I- 166
-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93.11.9 / I- 168
-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93.11.11 / I- 172
- 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93.11.13 / I- 176
-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93.11.20 / I- 185
-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 윤점룡교수 진술내용/93.11.26 / I- 194
-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93.11.27 / I- 195
-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93.12.1 / I- 201
-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93.12.3 / I- 206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통과/93.12.16 / I- 229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93.12.16 / I- 230
-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93.12.23 / I- 242
- 특수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실질적인 무상교육등 요구/94.6.23 / II- 240
-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93.11.26 / 193

<장애인취업>

- 지체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93.12.21 / I- 237
- "장애인의 취업 사회총체적인 노력 필요", 정책토론회/94.4.28 / II- 158
-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94.8.27 / 118
- 공무원 임용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94.8.27 / 118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94.9.8 / 140

<장애인 접근권>

-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124개역 편의시설 실태조사/94.3.25 /II- 107
- '휠체어타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체험' 행사, 「함께걸음 시민대행진」/94.4.19 /II- 144
- 휠체어사용자에 지하철은 금단의 땅,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94.4.20 /II- 145
-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직접 체험/94.4.21 /II- 147
-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94.4.28 /II- 158

행형실태

-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93.10.23 /I- 141
-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 청구/93.12.7 /I- 211
- 노태훈씨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93.12.7 /I- 212
-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영등포교도소/94.2.1 /I- 299
-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교도소 앞/94.2.2 /I- 302
- 영등포교도소 앞, '소장 사과·징벌 해제' 농성중, /94.2.3 /I- 309
- 박 일경 징벌 풀려, 공개사과도/94.2.4 /I- 312
-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94.3.3 /II- 71
- 529명 석탄일 가석방, 행형성적·복역기간등 '종합적 고려' /94.5.17 /II- 184
- 재소자 청원권 및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제한/94.7.5 /II- 260
- 영등포교도소 폭염속 2명의 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94.8.3 /84
-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해소송제기/94.8.6 /91
- 비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94.8.9 /92
-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50여명 식중독 증세 /94.9.28 /157
- 민변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94.9.28 /157
-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94.10.21 /195
- 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94.11.25 /252
- 안재구씨 가족, 24시간 수감조치 변협에 조사요청/94.12.1 /265

〈인권하루소식〉 합본 III

펴낸날 · 95년 3월 30일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인권을통사랑방

주소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값 1만원